農家月令歌

[해제]

<농가월령가>는 1년 열두 달 절서에 따라 농가에서 맞이하는 매월의 할 일을 권하는 권농가사(勸農歌辭)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이르던 조선시대에 세시절후(歲時節候)에 따라 지켜야 할 농가의 실천사항과 풍속 및 예의범절을 들어 달거리로 노래한 월령체(月令體)의 가사이다. 여기에는 영농생활의 실상과 흥취, 그리고 자부심과 보람까지 반영하고 있어 흙에서의 삶을 천명으로 여기던 순박한 농민들의 사실적 생활상과 농촌 사회에서 통용되어 오던 농가의 토박이말을 전하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도 평가된다. 가사의 작자와 연대는 조선조 광해 때의 고상안(高尙顔)이 지었다는 견해와 정약용(丁若鏞)의 둘째 아들인 헌종 때의 정학유(丁學游) 제작설 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더 두고 고구할 문제이다. 다음에 드는 가사의 원문은 조선문학전집 제2권으로, 일제시대 말에 신명균 편, 김태준 교열이라 하여 중앙인서관에서 발행한 歌詞集 의 글이다. 총 1008구의 구성으로서 전편을 13부분으로 나누어 엮은 장편가사이다. 앞부분에 서(序)를 제시하고, 이어서 월령가로서 정월령부터 12월령에 이르는 사설이 순차적으로 연속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구수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서 : 32구. 일행(日行)과 월륜(月輪)에 따라 생기는 1년 24절기를 두고 역법을 정하는 바, 우리 농가에서 중국의 하령(夏令)을 좇은 취지의 언급. 정월령 : 78구. 24절기 중 입춘 우수가 드는 맹춘(孟春)의 농가일과 새해맞이의 세시풍속, 그리고 세시 유희와 시식(時食) 등에 대한 노래. 이월령 : 54구. 24절기 중 경칩 춘분이 드는 중춘(仲春)에 다가올 농사의 준비와 이에 대한 대처, 아울러 촌가에서 건강을 위한 약재 구비의 당부. 삼월령 : 100구. 24절기 중 청명 곡우가 드는 모춘(暮春)에 한창인 봄날 계절감과 후한 농촌 풍속, 풍성한 물산, 산채 과목 등에 대한 노래. 사월령 : 68구. 24절기 중 입하 소만이 드는 맹하(孟夏)에 농가의 일로써, 잠농·면화 경작·논 가꾸기·벌통 손보기·천렵 등에 대한 술회. 오월령 : 98구. 24절기 중 망종 하지가 드는 중하(仲夏)에 타맥으로 곡식 장만하고, 농우 돌보기·잠농·모심기·단오절 풍속 등에 대한 노래. 유월령 : 100구. 24절기 중 소서 대서가 드는 계하(季夏)에 논밭 가꾸기·농가시식·농사의 재미·삼복과 유두 풍속 등에 대한 술회. 칠월령 : 72구. 24절기 중 입추 처서가 드는 맹추(孟秋)에 가을을 맞는 절서감을 비롯해 논밭의 가을 가꾸기, 환절기의 유념 사항 등 당부. 팔월령 : 71구. 24절기 중 백로 추분이 드는 중추(仲秋)에 백곡이 익은 황운(黃雲)의 감회, 추수 준비와 집안 할일, 농가의 풍속과 가을 시식의 열거. 구월령 : 66구. 24절기 중 한로 상강이 드는 계추(季秋)에 만산 상엽과 황국 추광의 감회, 중구 시속, 추수 재촉 등을 들고, 동민 협동에 대한 당부. 시월령 : 141구. 24절기 중 입동 소설이 드는 맹동(孟冬)에 농공을 필한 후의 집안일, 특히 김장 준비, 강신날 맞이와 그 때의 노름, 부모 봉양과 형제우애, 인간의 처신과 인륜 등의 강조. 십일월령 : 52구. 24절기 중 대설 동지가 드는 중동(仲冬)에 가을 곡식으로 갖가지 빚 청산, 동지 명절의 할일, 겨울 긴 밤의 길쌈과 아이들 글 익히기. 십이월령 : 76구. 24절기 중 소한 대한이 드는 계동(季冬)에 새해맞이로써 설빔 및 각종 음식 준비, 제선 봉사(祭先奉祀), 연사 풍흉 등의 관심과 술회. 이상 열거한 <농가월령가>의 자수율(字數律)에 의한 구(句) 구성은 주로 3.4조 내지는 4.4조이다. 그중 전자의 율격 전개가 더욱 우세하다. 그리고 2.4조 내지는 2.3조로써 구 구성을 한 변격의 경우도 있으나, 이는 10개 구 미만에 불과하여 가사체 운문으로서 천여 구에 달하는 이 가사의 율격 전개에 별달리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하겠다.

[원문]

農夫歌

사해창생 농부들아

일생신고 한치마라

사농공상 생긴후에
귀중할손 농사로다
만민지 행색이오
천하지 대본이라
敎民火食 하온후에
농사밖에 또잇는가
神農氏의 갈온밭에
后稷이의 뿌린종자
역산에 갈온밭은
순임금의 遺風이라
敎民八條 펴실적에
井田之法 지엇스니
繼廷傳播 수천년에
임림총총 백성들아
작야에 부든바람
척설이 다노갓다
우리농부 재내여라
춘분시절 이때로다
뒷동산에 살구꽃은
가지가지 봄빛이오
앞못에 창포잎은
층층이 움돋는다
곳곳이 포곡성은
춘색을 재촉하니
장장하일 긴긴날에
해는어이 수이가노
앞남산에 비저온다
누역사립 가초워라
밤이오면 잠간쉬고
잠을깨면 일이로다
녹양방초 저믄날에
석양풍이 어득부러
호미메고 입장구에
이또한 낙이로다
일락황혼 저믄날에
달을띄고 것는거름
동리로 도라오니
시문에 개짖는다

빛조흔 황삽사리
허대조흔 청삽사리
帶月荷鋤歸에
너는무삼 나를미워
꽝꽝짖는 네소래에
사람의정신을 놀래는도다

農家月令歌
천지 조판하매 日月星辰 비최거라
일월은 度數잇고 성신은 전차잇서
일년삼백 육십일에 제度數 도라오매
동지하지 춘추분은 日行을 추칙하고
上弦下弦 望晦朔은 月輪의 영휴로다
大地上 동서남북 곳을따라 틀리기로
북극을 보람하야 원근을 마련하니
매삭에 두절후가 一望이 사이로다
춘하추동 내왕하야 자연히 成歲하니
요순가치 착한임금 曆法을 창기하사
天時를 마련하여 만인을 맡기시니
하우씨 오백년은 寅月로 歲首하고
周나라 팔백년은 子月로 新定이라
當今에 쓰는曆法 하우씨와 한법이라
寒署溫凉 氣候차례 四時에 맞가즈니
孔夫子의 취하심이 하령을 행하도다

正月令
정월은 孟春이라 立春雨水 節氣로다
山中 澗壑에 氷雪은 나맛스나
平郊 廣野에 雲物이 變하도다
어화 우리성상 애민충농 하오시니
간칙하신 勸農綸音 방곡에 반포하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모리 무지한들
네몸리해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山田水畓 상반하야 힘대로 하오리라
一年 豊凶은 층량치 못하여도
人力이 극진하면 天灾를 면하나니
저각각 勸勉하야 게을리 구지마소
一年之計 在春하니 범사를 미리하라

봄에만일 실시하면 終年일이 낭패되네
農器를 다스리고 農牛를 살펴머겨
재거름 재와노코 일변으로 시러내여
麥田에 오즘주기 세전보다 힘써하소
늘근이 근력업서 힘든일 못하여도
낮이면 이엉엮고 밤이면 새끼꼬아
때미처 집이우면 큰근심 덜리로다
果實나무 버곳깎고 가지사이 돌끼우기
正朝날 未明時에 시험쪼로 하여보세
며느리 잊지말고 小麴酒 밑하여라
三春 百花時에 花前一醉 하여보세
上元날 달을보아 水旱을 안다하니
老農의 징험이라 대강은 짐작나니
正朝에 세배함은 敦厚한 풍속이라
새의복 떨처입고 親戚隣里 서로차자
노소남녀 아동까지 三三五五 다닐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사나희 연날리기 게집아희 널뛰기오
윳노라 내기하기 소년들의 노리로다
사당에 歲謁함은 餠湯에 酒果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드리면
보기에 신신하야 五辛菜를 부러하랴
보름날 약밥제도 新羅적 풍속이라
무근산채 살마내니 육미를 바꿀소냐
귀밝히는 약술이오 부름삭는 생률이라
먼저불러 더위팔기 달마지 횃불혀기
흘러오는 풍속이오 아희들 노리로다

二月令

二月은 仲春이라 驚蟄春分 節氣로다
초육일 좀생이는 豊凶을 안다하며
스무날 陰晴으로 대강은 짐작나니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히 문을여니
말랏든 풀뿔희는 속잎이 萌動한다
개고리 우는곳에 논물이 흐르도다
묏비둘기 소래나니 버들빛 새로와라
보장기 차려노코 春耕을 하오리라
살진밭 가리어서 春牟를 만히갈고

면화밭 되여두어 제때를 기다리소
담배모 일시므기 이를수록 조흐니라
園林을 粧點하니 生利를 겸하도다
一分은 果木이오 二分은 뽕나무라
뿔희를 상치말고 비오는날 시므리라
솔까지 찌거다가 울타리 새로하고
墻垣도 수축하고 개천도 처올리소
안팎에 싸힌검불 정쇄히 쓰러내여
불노하 재바드면 거름을 보태리라
六畜은 못다하나 牛馬鷄犬 기르리라
씨암탉 두세마리 알안겨 깨여보자
山菜는 일럿스니 들나물 캐여먹세
고들바기 씀바귀요 소로장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이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本草를 상고하야 藥材를 캐오리라
蒼白朮 當歸川芎 柴胡防風 山藥澤瀉
낱낱이 기록하야 때미처 캐여두소
村家에 기구업서 값진약 쓰올소냐

三月令

三月은 暮春이라 淸明穀雨 節氣로다
春日이 載陽하야 萬物이 和暢하니
百花는 난만하고 새소래 각색이라
堂前의 쌍제비는 옛집을 차자오고
花間의 범나비는 紛紛히 날고기니
미물도 得時하야 自樂함이 사랑흡다
寒食날 성묘하니 백양나무 새잎난다
雨露에 感愴함은 酒果로나 펴오리라
農夫의 힘드는일 가래질 첫재로다
점심밥 풍비하야 때마초아 배불리소
일군의 처자권속 따라와 가치먹세
農村의 후한풍속 斗穀을 앗길소냐
물꼬를 기피치고 드렁발바 물을막고
한편에 모판하고 그나마 살미하니
날마다 두세번씩 부지런히 살펴보소
약한싹 세워낼제 어린아희 보호하듯
百穀중 논농사가 범연하고 못하리라
浦田에 서속이오 山田에 두태로다

들깨모 일즉붓고 삼농사도 하오리라
조흔씨 가리어서 그루들 相換하소
보리밭 매여노코 못논을 되어두소
들농사 하는틈에 治圃를 아니할가
울밑에 호박이오 처맛가에 박시므고
담근처에 동아시며 가자하야 올려보세
무우배차 아옥상취 고초가지 파마눌을
색색이 분별하야 빈따업시 시머노코
갯버들 비어다가 개바자 둘러막고
鷄犬을 방비하면 자연히 무성하리
외밭은 따로하야 거름을 만히하소
農家의 여름반찬 이밖에 또잇는가
뽕눈을 살펴보니 누에날때 되겟고나
어화 부녀들아 蠶農을 專心하소
蚕室을 소쇄하고 諸具를 準備하니
다라끼 칼도마며 채광주리 달발이라
각별히 조심하야 내음새 업시하소
寒食前後 三四日에 果木을 접하나니
단행니행 울능도며 문배참배 능금사과
엇접피집 도마접에 행차접이 잘사나니
청다디 정능매는 古査에 접을부쳐
농사를 필한후에 분에올려 드려노코
天寒白屋 風雪中에 春色을 홀로보면
實用은 아니로되 산중의 취미로다
인간의 요긴한일 장담는 정사로다
소곰을 미리바다 법대로 담그리라
고초장 두부장도 맛맛으로 가초하소
前山에 비가개니 살진香菜 캐오리라
삽주두릅 고사리며 고비도랏 어아리를
一分은 여꺼달고 二分은 무처먹세
落花를 쓸고안저 병술로 즐길적에
山菜의 준비함이 佳肴가 이뿐이라

四月令
四月이라 孟夏되니 立夏小滿 節氣로다
비온끝에 별이나니 日氣도 淸和하다
떡갈닢 퍼질때에 뻐꾹새 자로울고
보리이삭 패여나니 꾀꼬리 소래난다

농사도 한창이오 蚕工도 방장이라
男女老少 골몰하야 집에잇슬 틈이업서
적막한 대사립을 녹음에 다닷도다
綿花를 만히가소 紡績의 근본이니
수수동부 녹두참깨 부록을 적게하소
갈꺼꺼 거름할제 풀비어 서꺼하소
무논을 쓰으리고 이른모 내여보자
農糧이 부족하니 환자타 보태리라
한잠자고 이는누에 하로도 열두밥을
밤낮을 쉬지말고 부즈런히 머기리라
뽕따는 아희들아 훗그루 보아하야
古木은 가지찍고 햇닢은 제처따소
찔레꽃 만발하니 저근가물 업슬소냐
이때를 乘時하야 나할일 생각하소
도랑처 수도내고 우루처 改瓦하야
陰雨를 防備하면 뒷근심 더으나니
봄나이 필무명을 이때에 마전하고
베모시 형세대로 여름옷 지어두소
벌통에 새끼나니 새통에 바드리라
千萬이 一心하야 蜂王을 호위하니
꿀먹기도 하려니와 君臣分義 깨닷도다
八日에 懸燈함은 山村에 불긴하니
느티떡 콩찐이는 제때의 別味로다
앞내에 물이주니 천렵을 하여보자
해길고 잔풍하니 오늘노리 잘되겟다
碧溪水 白沙場을 굽이굽이 차자가니
水丹花 느진꽃은 봄빛이 나맛고나
촉고를 둘러치고 銀麟玉尺 후려내여
盤石에 노고걸고 속고처 끌혀내니
八珍味 五侯鯖을 이맛과 바꿀소냐

五月令

五月이라 仲夏되니 芒種夏至 節氣로다
南風은 때마초아 麥秋를 재촉하니
보리밭 누른빛이 밤사이 나겟고나
문앞에 터를닦고 打麥場 하오리라
드는낫 비어다가 단단히 헤처노코
도리깨 마조서서 짓내여 두다리니

불고쓴듯 한든집안 졸연히 興成하니
담석에 나믄곡식 하마거의 진할리니
중간에 이곡식이 新舊相繼 하겟고나
이곡식 아니러면 여름농사 어찌할고
天心을 생각하니 은혜도 망극하다
牧童은 노지말고 農牛를 보살펴라
뜸물에 꼴머거고 이슬풀 자로뜯겨
그루가리 모시므기 제힘을 빌리로다
보리짚 말리우고 솔까지 만히싸하
장맛나무 준비하야 임시걱정 업시하세
蚕農을 마칠때에 사나희 힘을비러
누에섶도 하려니와 고치나무 장만하소
고치를 따오리라 淸明한날 갈희어서
밭우에 엷게널고 폭양에 말리우니
쌀고치 무리고치 누른고치 흰고치를
색색이 분별하야 一二分 씨를두고
그나마 쓰오리라 자애를 차려노코
왕채에 올려내니 氷雪가튼 실오리라
사랑홉다 자애소래 琴瑟을 고르는듯
婦女들 적공드려 이자미 보는고나
五月五日 端午날 物色이 生新하다
외밭에 첫물따니 이솔에 저젓스며
앵도이거 불근빛이 아침볕에 바희도다
목매친 영게소래 이김벌로 자로운다
鄕村의 아녀들아 鞦韆은 말려니와
靑紅裳 장포비녀 佳節을 허송마라
노는틈에 하올일이 약쑥이나 비어두소
上天이 至仁하사 油然히 作雲하니
때미처 오는비를 뉘능히 마글소냐
처음에 부슬부슬 몬지를 적신후에
밤드러 오는소래 패연히 드리운다
관솔붙 둘러안자 내일일 마련할제
뒷논은 뉘시므고 앞밭은 뉘가갈고
되롱이 접사리며 삿갓은 몇벌인고
모찌기는 자네하소 논심기는 내가함세
들깨모 담배모는 머슴아희 마타내고
가지모 고초모는 아기딸 너하여라
맨도랑 봉선화는 네사천 너무마라

아기어멈 방아찌어 들바라지 점심하소
보리밥과 창국에 고초장 상취쌈을
넉넉히 능을두어 식구를 헤아리소
샐때에 문에나니 개울에 물넘는다
메나리 화답하니 擊壤歌 아니런가

六月令
六月이라 季夏되니 小暑大暑 節氣로다
大雨도 行時하고 더위도 극심하다
草木이 무성하니 파리모기 모여들고
平地에 물이괴니 악마구리 소래난다
봄보리 밀귀리를 차레로 비어내고
느즌콩팥 조기장을 비기전 대우드려
地力을 쉬지말고 극진히 다스리소
절믄이 하는일이 기음매기 뿐이로다
논밭을 갈마드려 삼사차 돌려맬제
그중에 면화밭은 인공이 더드나니
틈틈이 나물밭도 붓도다 매가꾸소
집터울밑 도라가며 잡풀을 없게하소
날새면 호미들고 긴긴해 쉴새업시
땀흘려 흙이젖고 숨막혀 기진할듯
때마침 점심밥이 반갑고 신기하다
정자나무 그늘밑에 坐次를 정한후에
점심그릇 여러노코 보리단술 먼저먹세
반찬이야 잇고없고 주린창자 메인후에
淸風에 醉飽하니 잠시간 낙이로다
농부야 근심마라 수고하는 값이잇네
오조이삭 청대콩이 어느사이 이것고나
일로보아 짐작하면 양식걱정 오랠소냐
해진후 도라올제 노래끝에 우슴이라
애애한 저녁내는 산촌이 잠겨잇고
월색은 몽롱하야 밭길애 비최거다
늘근이 하는일도 바히야 업슬소냐
이슬아적 외따기에 되약볕에 보리널기
그늘곁에 누역치기 창문앞에 노꼬기와
하다가 고달프면 목침베고 허리쉬움
北窓風에 잠을드니 희황씨적 백성이라
잠깨여 바라보니 급한비 지나가고

먼나무에 쓰르라미 석양을 재촉한다
노파의 하는일은 여러가지 못하여도
무근솜 들고안저 알뜰히 피어내니
장마속의 소일이오 낮잠자기 이젓도다
삼복은 俗節이오 流頭는 佳日이라
원두밭에 참외따고 밀가라 국수하야
家廟에 천신하고 한때음식 즐겨보세
婦女는 헤피마라 밀기울 한데모아
누룩을 드디어라 流頭麴을 헤느니라
호박나물 가지김치 풋고초 양념하고
옥수수 새맛으로 일없는이 머거보소
장똑을 살펴보아 제맛을 일치말고
말근장 따로모아 익는족족 떠내여라
비오면 덮겟슨즉 독전을 정히하소
南北村 合力하야 삼구덩이 하여보세
삼대를 비어무꺼 익게쩌 벗기리라
고은삼 길삼하고 굴근삼 바드리소
농가에 요긴키로 곡식과 가치치네
山田모밀 먼저갈고 浦田은 나종갈소

七月令

七月이라 孟秋되니 立秋處暑 節氣로다
火星은 西流하고 尾星은 中天이라
늦더위 잇다한들 절서야 소길소냐
비밑도 가비엽고 바람끝도 다르도다
가지우의 저매아미 무엇으로 배를불려
공중의 말근소래 다토아 자랑는고
七夕에 牽牛織女 離別淚가 비가되여
성긴비 지내가고 오동잎 떠러질제
峨嵋가튼 초생달이 西天에 걸리거다
슬프다 농부들아 우리일 거의로다
얼마나 나맛스며 어떠케 되다하노
마음을 노치마소 아직도 멀고멀다
골거두어 기음매기 벼포기에 피고르기
낫벼러 드렁깎기 先山에 벌초하기
거름풀 만히비어 더미지어 모아노코
자채논에 새보기와 오조밭에 정의아비
밭가에 길도닦고 覆沙도 처올리소

살지고 연한밭에 거름하고 익게가라
김장할 무우배차 남먼저 시머노코
가시울 진작하야 허술함이 없게하소
부녀들도 셈이잇서 앞일을 생각하소
뵈짱이 우는소래 자내를 위함이라
저소래 깨쳐드러 놀라처 다스리소
장마를 겨껏스니 집안을 도라보아
곡식도 거풍하고 의복도 포쇄하소
명지오리 어서몽저 生凉前 짜를내소
늘그신네 기쇠하매 환절때를 조심하고
秋凉이 갓가우니 의복을 유의하소
빨래하야 바래이고 풀머겨 다드믈제
月下의 방추소래 소래마다 밧븐마음
室家의 골몰함이 일변은 자미로다
소채과실 흔할적에 저축을 만히하소
박호박 고지켜고 외가지 짜게저려
겨울에 머거보소 귀물이 아니될가
면화밭 자로살펴 올다래 피엇는가
가꾸기도 하려니와 거두기에 달렷나니

八月令

八月이라 仲秋되니 白露秋分 節氣로다
北斗星 자로도라 西天을 가르치네
선선한 조석기운 秋意가 완연하다
귀또라미 말근소리 壁間에 들리노나
아침에 안개끼고 밤이면 이슬나려
여물드러 고개수거
西風에 익는빛은 黃雲이 이러난다
白雪가튼 면화송이 珊瑚가튼 고초다래
첨아에 너럿스니 가을볕 명랑하다
안팟마당 다까노코 발채망구 장만하소
면화따는 다라끼에 수수이삭 콩가지오
나무꾼 도라올제 머루다래 山果로다
뒷동산 밤대초는 아희들 세상이라
알암도 말리어라 철대여 쓰게하자
명지를 끈허내여 秋陽에 마전하야
쪽드리고 잇드리니 靑紅이 색색이라
父母님 年滿하니 壽衣를 유의하고

그나마 마루재아 子女의 婚需하세
집우에 구든박은 요긴한 기명이라
댑싸리 비를매여 마당질에 쓰오리라
참깨들깨 거둔후에 중오려 타작하고
담배발 녹두말을 아쉬어 作錢하랴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것 잊지마소
북어쾌 젓조기로 秋夕名日 쉬어보세
新稻酒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先山에 祭物하고 이옷집 난화먹세
며느리 말미바다 본집에 근친갈제
개자바 살마얹고 떡고리며 술병이라
초록장옷 반물치마 단장하고 다시보니
여름동안 지친얼골 소복이 되엿느냐
中秋夜 발근달에 지기펴고 놀고오소
금년할일 못다하야 명년게교 하오리라
밀대비어 더운가리 모맥을 秋耕하세
끝끝히 못이거도 급한대로 걷고갈소
人功만 그러할가 天時도 이러하니
반각도 쉴새업시 마치며 시작느니

九月令

九月이라 季秋되니 寒露霜降 節氣로다
제비는 도라가고 떼기러기 언제왓노
碧空에 우는소래 찬이슬 재촉는다
萬山 楓葉은 연지를 물드리고
울밑에 황국화는 秋光을 자랑한다
九月九日 佳節이라 花煎하야 천신하세
절서를 따라가며 追遠報本 잊지마소
물색은 조커니와 추수가 시급하다
들마당 집마당에 개상에 태돌이라
무논은 비어깔고 건답은 비두다려
오늘은 정근벼요 내일은 사발벼라
밀따리 대초벼와 등트기 경상벼라
들에는 조피떠미 집가에 팥콩까리
벼타작 마친후에 틈나거든 두다리세
비단차조 이부꾸리 매눈이콩 황부대를
이삭으로 먼저잘라 후씨로 따로두소
절은이는 태질이오 게집사람 낫질이라

아희는 소몰리고 늘근이 섬우기기
이웃집 울력하야 제일하듯 하는것이
뒷목추기 짚널기와 마당끝에 키질하기
일변으로 면화틀기 씨앗소래 요란하다
틀차려 기름짜기 이웃끼리 합력하세
燈油도 하려니와 음식도 맛이잇네
밤에는 방아찌어 밥쌀을 장만할제
찬서리 긴긴밤에 우는아기 도라볼가
타작점심 하오리라 黃鷄白酒 부족할가
새우젓 게란찌개 상찬으로 차려노코
한가을 흔할적에 過客도 청하나니
한동내 이웃하야 한들에 농사할제
수고도 난화하고 없는것도 서로도아
이때를 만낫스니 즐기기도 가치하세
아모리 다사하나 農牛를 보살펴라
조피때 살을찌어 제공을 가프리라

十月令
十月은 孟冬이라 立冬小雪 節氣로다
나잎무 떨어지고 곤이소래 노피난다
듯거라 아희들아 農功을 필하여도
나믄일 생각하야 집안일 마자하세
무우배차 캐여드려 김장을 하오리라
앞내에 정히씨서 塩淡을 맞게하고
고초마눌 생강파에 젓국지 장앗지라
독곁에 중두리오 바탕이 항아리라
양지에 가가짓고 짚에싸 기피묻고
바기무 알암말도 얼잔케 간수하소
방고래 구두질과 바람벽 맥질하기
창호도 발라노코 쥐구녕도 마그리라
수수때로 덧울하고 외양깐에 떼적치고
깍지도 무꺼세고 過冬柴 싸하노코
우리집 부녀들아 겨울옷 지엇느냐
술빚고 떡하여라 降神날 갓가왓다
꿀꺼써 단자하고 모밀아서 국수하소
소잡고 돝자브니 음식이 풍비하다
들마당에 차일치고 동내모아 자리포진
노소차례 틀릴세라 남녀분별 각각하소

삼현한패 어더오니 花郞이 줄모지라
북치고 소래하니 與民樂이 제법이라
이풍헌 김첨지는 잔말끝에 醉倒하고
崔권농 姜약장은 체궈러 춤을춘다
盞進支 하올적에 동장님 상좌하야
잔받고 하는말슴 자세히 드러보소
어와 오늘노름 이노름이 뉘덕인고
天恩도 그지없고 國恩도 망극하나
다행이 풍년만나 기한을 면하도다
鄕約은 못하여도 洞憲이야 업슬소냐
入孝出恭 대강아라 도리를 일치마소
사람의 자식되여 부모은혜 모를소냐
자식을 길러보면 그제야 깨다르리
천신만고 길러내여 男婚女嫁 필하오면
제각각 몸만아라 부모봉양 이즐소냐
기운이 쇠진하면 바라느니 절믄이라
의복음식 잠자리를 각별히 살펴드려
행여나 병나실가 밤낮으로 잊지마소
곡가오신 마음으로 걱정을 하실적에
중중거려 대답말고 화기로 푸러내고
드러온 지어미는 남편의 거동보아
그대로 본을뜨니 보는데 조심하소
형제는 한이운이 두몸에 난홧스니
귀중하고 사랑함이 부모의 다음이라
네것내것 게교마소 남남끼리 모인동서
틈나서 하는말을 귀에다마 듯지마소
자연히 귀순하리
행신에 먼저할일 공순이 제일이라
내늘근이 공경할제 남의어른 다를소냐
말슴을 조심하야 인사를 일치마소
하물며 上下分義 尊貴가 현격하다
내도리 극진하면 죄책을 아니보리
임금의 백성되여 은덕으로 사라가니
거미가튼 우리백성 무엇으로 가파볼가
일년의 환자신역 그무엇 만타할고
한번에 필납함이 분의에 마땅하다
하물며 전답구실 토지로 분등하니
소출을 생각하면 왕세를 거랍하랴

한동내 몇戶數에 각성이 居生하야
信義를 아니하면 화목을 어찌할고
혼인대사 부조하고 喪葬憂患 보살피며
水火盜賊 구원하고 有無稱貸 서로하야
날보다 요부한이 용심내여 시비말고
그중에 환과고독 자별히 구휼하소
제각각 정한분복 억지로 못하나니
자내들 헤여보아 내말을 잊지마소
이대로 하여가면 잡생각 아니나리
酒色雜技 하는사람 初頭부터 그리할가
우연히 그릇드러 한번하고 두번하면
마음이 방탕하야 그칠줄 모르나니
자네들 조심하야 저근허물 짓지마소

十一月令
十一月은 仲冬이라 大雪冬至 節氣로다
바람불고 서리치고 눈오고 어름언다
가을에 거둔곡식 얼마나 하엿든고
몇섬은 환하고 몇섬은 왕세하고
얼마는 祭飯米오 얼마는 씨앗이며
도지도 되여내고 품값도 가프리라
시겟돈 장변리를 낱낱이 수쇄하니
엄부렁 하든것이 남저지 바이없다
그러한들 어찌할고 농량이나 여투리라
콩기름 우거지도 조반석죽 다행하다
부녀야 네할일이 며주쑬일 나맛도다
익게삶고 매우찌어 띄워서 재와두소
동지는 명일이라 一陽이 生하도다
時食으로 팥죽쑤어 隣里親戚 난화먹세
새책력 반포하니 來年節候 어떠한고
해절러 덧없고 밤기러 지루하다
공채사채 요량하니 관리면임 아니온다
시비를 다닷스니 초옥이 한가하다
短晷에 朝夕하니 자연히 틈없나니
등잔불 긴긴밤에 길삼을 힘써하소
베틀곁에 물레노코 틀고타고 잣고짜네
자란아희 글배우고 어린아희 노는소리
여러소리 짓거리니 室家의 자미로다

늘근이 일업스니 기즉이나 매여보자
외양간 살펴보아 여물을 가끔주소
깃주어 바든거름 자로처야 모이나니

十二月令
十二月은 季冬이라 小寒大寒 節氣로다
雪中의 峰巒들은 해저은 빛이로다
歲前에 나은날이 얼마나 걸렷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설빔의복 장만하고
무명명주 끈허내여 온갖무색 드려내니
자지보라 송화색에 청화갈매 옥색이라
일변으로 다드므며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홰때에도 거럿도다
이블것 그만두고 머글것 장만하세
떡쌀은 몇말이며 술쌀은 몇말인고
콩가라 두부하고 모밀쌀 메밀만두빚소
歲肉은 게를믿고 북어는 장에사세
납평날 창에무더 자븐꿩 몇마린고
아희들 그물처서 참새도 지저먹세
깨강정 콩강정에 곳감대추 생률이라
酒樽에 술드리니 돌틈에 새암소리
앞뒷집 打餠聲은 에도나고 제도나네
새등잔 새발심지 장등하야 새울적에
웃방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무근세배 하는고나
어화 내말듯소 農業이 어떠한고
終年근고 한다하나 그중에 낙이잇네
우흐로 국가봉용 사게로 祭先奉親
형제처자 혼상대사 먹고입고 쓰는것이
土地所出 아니러면 돈지당 어이할고
예로부터 이른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배부려 船業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전당잡고 빛주기와 장판에 체게노키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가보기
아직은 흔전하나 한번을 뒤뚝하면
파락호 빛구러기 사든곳 터도없다
농사는 믿는것이 내몸에 달렷느니
節氣도 進退잇고 年事도 풍흉잇서

農家月令歌

水旱風雹 잠시재앙 없디야 하랴마는
극진이 힘을드려 家率이 일심하면
아무리 살년에도 餓死를 면하느니
제시골 제지키어 소동할뜻 두지마소
皇天이 至仁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寧邊歌

-. 영변의 약산이동대야 애헤이해여 네
부대 평안히 잘잇거라 나도 명년 양춘
은 가절이라 또다시 만나보잔다 남산
을 바라를 보아라 진달화초는 만발하
엿는데 웃동 짧고 아랫동 느러진 사

[현대역]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천지(天地)가 조판(肇判)함에3 일월성신(日月星辰)이4 비췄도다.
해와 달은 도수(度數)5 있고 별들은 전차(躔次)6 있어
일년 삼백 육십일에 제 도수 돌아옴에,
동지(冬至) 하지(夏至) 춘추분(春秋分)은7 일행(日行)을8 추측하고,
상현(上弦) 하현(下弦) 망회삭(望晦朔)은9 월륜(月輪)의 영휴(盈虧)로다.10
대지(大地) 위에 동서남북 곳을 따라 틀리기로,
북극(北極)을11 표적하여 원근을 마련하니,
매삭(每朔)에 두 절후(節候)가12 일망(一望)13 사이로다.
춘하추동이 오고가서 자연히 성세(成歲)하니,14
요순(堯舜)같이15 착한 임금 역법(曆法)을 창기(創基)하사,16
천시(天時)를17 기록으로 마련하여 만인(萬人)에게 맡기시니,
하우씨(夏禹氏)18 오백년은 인월(寅月)로 세수(歲首)하고,19
주(周)나라20 팔백년은 자월(子月)로21 세수키로 새로 정하였네.
지금에 쓰는 역법 하우씨와 같은 법이라,
한서온량(寒暑溫凉)22 기후(氣候)의 차례 사시(四時)에23 맞갖으니,
공부자(孔夫子)의24 취하심이 하령(夏令)을25 행하도다.

정월령(正月令)
정월은 맹춘(孟春)이라26, 입춘 우수(立春雨水)의27 절기(節氣)로다.
산중의 간학(澗壑)엔28 빙설(氷雪)이29 남았으나,
평교 광야(平郊廣野)에30 운물(雲物)이31 변하도다.
어와 우리 성상(聖上) 애민 중농(愛民重農)하오시니,32
간측(懇側)하신33 권농 윤음(勸農綸音)34 방곡(坊曲)에까지35 반포(頒布)하니,36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無知)한들,
네 몸 이해(利害)37 고사하고 성의(聖意)를38 어길쏘냐.
산전 수답(山田水畓) 상반(相半)하여39 힘대로 하오리라.
한 해의 풍흉(豊凶)은40 측량(測量)치 못하여도,
사람 힘이 극진하면 천재(天災)를41 면하느니,
제 각각 근면(勤勉)하여 게을리 굴지 마소.
일년지계 재춘(一年之計在春)하니42 범사(凡事)를43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失時)하면44 종년(終年)45 일이 낭패되네.
농기구(農器具)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46 살펴 먹여
재와 거름 재워놓고47 일변(一邊)으로48 실어내어,
맥전(麥田)에49 오줌 주기 세전(歲前)보다50 힘써하소.
늙은이 근력 없어 힘든 일 못하여도,

낮이면 이엉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
때가 되어 지붕 이으면 큰 근심 덜 것이로다.
과실(果實)나무 보굿51 깎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정조(正朝) 날 미명시(未明時)에52 시험조(試驗調)로53 하여보세.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小麴酒)를54 밑술해라.55
삼춘(三春)의 백화시(百花時)에56 화전 일취(花前一醉)하여보세.57
상원(上元)58 날 달을 보아 수한(水旱)을59 안다 하니,
노농(老農)의60 징험(徵驗)이라 대강은 짐작 나니,
정조(正朝)에 세배함은 돈후(敦厚)한 풍속이라.
새 의복 떨쳐입고 친척 인리(親戚隣里)61 서로 찾아,
노소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三三五五)62 다닐 적에,
와삭 버석 울긋불긋 물색(物色)이63 번화(繁華)하다.
사나이 연날리기 계집아이 널뛰기요,
윷놀아 내기하기 소년들의 놀이로다.
사당(祠堂)의 세알(歲謁)에는64 병탕(餠湯)에 주과(酒果)로다.65
움파와 미나리를 무움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新新)하여66 오신채(五辛菜)를67 부러워하랴.
대보름날 약밥 제도 신라(新羅) 적 풍속이라.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미(肉味)와68 바꿀쏘냐.
귀 밝히는 약술이요, 부럼69 삭는 생률(生栗)이라.70
먼저 불러 더위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희들의 놀이로다.

이월령(二月令)
이월은 중춘(仲春)이라71 경칩 춘분(驚蟄春分)의72 절기(節氣)로다.
초육일 좀생이는73 풍흉(豊凶)을74 안다 하며,
스무날 음청(陰晴)으로75 대강은 짐작하니,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依舊)히76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맹동(萌動)한다.77
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흐르도다.
멧비둘기 소리 나니 버들 빛 새로워라.
보 장기 차려 놓고 춘경(春耕)을78 하오리라.
살진 밭 가리어서 춘모(春牟)를79 많이 갈고,
면화 밭 되갈아두고 제 때를 기다리소.
담배 모 일찍 심기는 이를수록 좋으니라.
원림(園林)을 장점(粧點)하니80 생리(生利)를81 겸하도다.
한 부분은 과목(果木)이요,82 또 한 부분은 뽕나무라.
뿌리를 상하지 말고 비 오는 날 심으리라.

솔가지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 하고,
장원(墻垣)도 수축(修築)하고83 개천도 쳐올리소.
안팎에 쌓인 검불 정쇄(精灑)히84 쓸어내어,
불을 놓아 재 받으면 거름을 보태리라.
육축(六畜)은85 못 다하나 우마 계견(牛馬鷄犬)86 기르리라.
씨암탉 두세 마리 알 안겨 깨여보자.
산나물은 이르지만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요, 소리쟁이 물쑥이라.
달래 김치 냉이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본초(本草)를87 상고하야 약재(藥材)를88 캐리라.
창백출(蒼白朮)89 당귀 천궁(當歸川芎)90 시호 방풍(柴胡防風)91 산약 택사(山藥澤瀉)92
낱낱이 기록하야 때 미치면 캐어 두소.
촌가(村家)에 기구 없어 값진 약 쓸 것인가.

삼월령(三月令)
삼월은 모춘(暮春)이라,93 청명 곡우(淸明穀雨)94 절기로다.
봄날이 재양(載陽)하여95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百花)는96 난만(爛漫)하고97 새 소리도 각색이라.
짐 앞의 쌍 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화간(花間)의98 범나비는 문문(紛紛)히 날고기니,
미물(微物)도 득시(得時)하야99 자락(自樂)함이100 사랑스럽다.
한식(寒食)101 날 성묘(省墓)하니 백양(白楊)나무102 새잎 난다.
우로(雨露)에103 감창(感愴)함은104 주과(酒果)로나105 펴리라.
농부의 힘 드는 일 가래질이 첫째로다.
점심밥 풍비(豐備)하여106 때맞추어 배불리소.
일꾼의 처자 권속(妻子眷屬)107 따라와서 같이 먹세.
농촌의 후한 풍속 두곡(斗穀)을108 아낄쏘냐.
논의 물꼬 깊이 치고 밭도랑 밟아 물을 막고,
한편에는 모판하고, 그 나머지 삶이하니,109
날마다 두세 번씩 부지런히 살펴보소.
약한 싹 세워낼 제 어린아이 보호하듯,
백곡(百穀) 중 논 농사는 범연(泛然)하지110 못하리라.
포전(浦田)에111 서속(黍粟)이요,112 산전(山田)에113 두태(豆太)로다.114
들깨 모 일찍 붓고 삼 농사도 하오리라.
좋은 씨 가리어서 그루를115 상환(相換)하소.116
보리밭 매어놓고 못논을 되어두소.
들농사 하는 틈에 치포(治圃)를117 아니 할까.
울 밑에 호박이요, 처맛가에 박 심고,

담 근처에 동아118 심어 가자(架子)하여119 올려보세.
무 배추 아욱 상추 고추 가지 파 마늘을
색색으로 분별하야 빈 땅 없이 심어놓고,
갯버들 비어다가 개바자로120 둘러막고,
계견(鷄犬)을 방비(防備)하면 자연히 무성하리.
외밭은 따로 하여 거름을 많이 하소.
농가(農家)의 여름반찬 이밖에 또 있는가.
뽕 눈을 살펴보니 누에 날 때 되겠구나.
어와 부녀들아 잠농(蠶農)을121 전심(專心)하소.
잠실(蚕室)을122 소쇄(掃灑)하고123 제구(諸具)를124 준비하니,
다래끼 칼 도마며 채광주리 달발이라.
각별히 조심하여 냄새를 없이하소.
한식(寒食)125 전후 삼사일에 과목(果木)을126 접하나니,
단행 이행(丹杏李杏) 울릉도며 문배 참배127 능금 사과
엇접 피접 도마접에 행차접이 잘 사나니.
청다래 정릉매는 고사(古査)에128 접을 부쳐,
농사를 필(畢)한 후에 분(盆)에 올려 들여놓고,
천한 백옥(天寒白屋)129 풍설(風雪)130 중에 춘색(春色)을 홀로 보면,
실용(實用)은 아니로되 산중의 취미로다.
인간의 요긴한 일 장 담는 정사(政事)로다.131
소금을 미리 받아 법대로 담그리라.
고추장 두부장(豆腐醬)도 맛맛으로 갖춰 하소
앞산에 비가 개니 살진 향채(香菜)132 캐 오리라.
삽주 두릅 고사리며 고비 도랒 어아리(개나리)를
일부는 엮어 달고 또 일부는 무쳐 먹세.
낙화(落花)를 쓸고 앉아 병술로 즐길 적에,
산채(山菜)의133 준비함이 가효(佳肴)가134 이뿐이라.

사월령(四月令)
사월이라 맹하(孟夏)되니135 입하 소만(立夏小滿)136 절기로다.
비온 끝에 별이 나니 일기도 청화(淸和)하다.137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 난다.
농사도 한창이요, 잠공(蠶功)도138 방장(方壯)이라.139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대사립을 녹음(綠陰에 닫았도다.
면화(綿花)를 많이 가소. 방적(紡績)의140 근본이니,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무논을 써레질하여 이른모 내어보자.
농량(農糧)이141 부족하니 환자(還子)142 타서 보태리라.
한잠 자고 이는 누에 하루도 열두 밥을,
밤낮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이리라.
뽕따는 아이들아 뒷그루 보아하여,
고목(古木)은 가지 찍고 햇잎은 제쳐 따소.
찔레꽃 만발하니 적은 가뭄 없을쏘냐.
이 때를 승시(乘時)하여143 내 할일 생각하소.
도랑 쳐서 수도(水道)144 내고 우루처(雨漏處)145 개와(蓋瓦)하여,146
음우(陰雨)를147 방비하면 뒷근심 더나니,
봄낳이148 필 무명을 이때에 마전하고,149
삼베 모시 형세대로 여름옷 지어두소.
벌통에 새끼 나니 새 통에 받으리라.
천만(千萬) 벌이 일심(一心)으로 봉왕(蜂王)을150 호위하니,
꿀 먹기도 하려니와 군신분의(君臣分義)151 깨닫도다.
파일(八日)에152 현등(懸燈)함은153 산촌에 불긴(不緊)하니,154
느티떡 콩 찐 떡은 제때의 별미(別味)로다.
앞내에 물이 주니 천렵(川獵)을155 하여보자.
해 길고 잔풍(殘風)하니156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벽계수(碧溪水)157 백사장(白沙場)을158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水丹花)159 늦은 꽃엔 봄빛이 남았구나.
촉고(數罟)를160 둘러치고 은린옥척(銀麟玉尺)161 후려내어,
반석(盤石)에 노구162 걸고 솟구쳐 끓여내니,
팔진미(八珍味)163 오후청(五侯鯖)을164 이 맛과 바꿀쏘냐.

오월령(五月令)
오월이라 중하(仲夏)되니165 망종 하지(芒種夏至)166 절기로다.
남풍은 때맞추어 맥추(麥秋)를167 재촉하니,
보리밭 누른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문 앞에 터를 닦아 타맥장(打麥場)하오리라.168
드는 낫으로 베어다가 단단히 헤쳐 놓고,
도리깨 마주서서 짓을 내어 두드리니,
불고 쓴 듯 하든 집안 졸연(卒然)히169 흥성(興盛)하니,170
담석(儋石)에171 남은 곡식 하마 거의 진(盡)하리니,172
중간에 이 곡식이 신구상계(新舊相繼)하겠구나.173
이 곡식 아니라면 여름 농사 어찌할꼬.
천심(天心)을 생각하니 은혜(恩惠)도 망극하다.

목동(牧童)은 노지 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펴라.
뜨물에 꼴 먹이고 이슬 풀 자주 뜯겨
그루갈이174 모심기 제 힘을 빌리리라.
보리 짚 말리우고 솔가지 많이 쌓아
장마 때 나무 준비해 임시 걱정 없이 하세.
잠농(蚕農)을175 마칠 때에 사나이 힘을 빌려
누에섶도176 하려니와 고치 나무 장만하소.
고치를 따오리라, 청명(淸明)한 날 가리어서
밭 위에 엷게 널고 폭양(曝陽)에177 말리니,
쌀고치 무리고치178 누른 고치 흰 고치를
색색이 분별하여 한두 푼 씨를 두고,
나머지는 쓰리라 자애를179 차려 놓고.
왕채에 올려 내니 빙설(氷雪)180 같은 실오리라.
사랑스럽다 자애 소리 금슬(琴瑟)을181 고르는 듯,
부녀들 적공(積功)182 들여 이 재미 보는구나.
오월 오일 단오(端午)183 날 물색(物色)이184 생신(生新)하다.185
외밭에 첫물 따니 이슬에 젖었으며,
앵두 익어 붉은 빛이 아침볕에 바희도다.
목 메인 영계(鷄)186 소리 익힘으로 자주 운다.
향촌(鄕村)의187 아녀(兒女)들아 추천(鞦韆)은188 말려니와
청홍상(靑紅裳) 창포(菖蒲)비녀189 가절(佳節)을190 허송마라.
노는 틈에 하올 일이 약쑥이나 비어 두소.
상천(上天)이 지인(至仁)하사191 유연(油然)히 작운(作雲)하니,192
때 미쳐 오는 비를 누가 능히 막을쏘냐.
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적신 후에,
밤들어 오는 소리 패연(沛然)히193 드리운다.
관솔불 둘러앉아 내일 일 마련할 제,
뒷논은 뉘 심우고 앞밭은 누가 갈꼬.
도롱이 접사리며 삿갓은 몇 벌인고.
모찌기는 자네 하소, 모심기는 내가 함세.
들깨 모 담배 모는 머슴아이 맡아내고,
가지 모 고추 모는 아기 딸 너 하여라.
맨드라미 봉선화는 네 사천194 너무 마라.
아기 어멈 방아 찧어 들바라지195 점심하소.
보리밥과 찬국에196 고추장 상추쌈을
넉넉히 능을197 두어 식구를 헤아리소.
샐 때에 문(門)에 나니 개울에 물 넘는다.
메나리198 화답(和答)하니 격양가(擊壤歌)199 아니런가.

유월령(六月令)
유월이라 계하(季夏)되니200 소서 대서(小暑大暑)201 절기로다.
대우(大雨)도 행시(行時)하고202 더위도 극심하다.
초목(草木)이 무성(茂盛)하니 파리 모기 모여 들고,
평지(平地)에 물이 괴니 악머구리203 소리 난다.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비어내고,
늦은 콩팥 조 기장을 베기 전에 대우204 들여
지력(地力)을205 쉬지 말고 극진히 다스리소.
젊은이 하는 일이 김매기뿐이로다.
논밭을 갈마들여206 삼사차(三四次) 돌려 맬 제,
그 중에 면화(棉花) 밭은 인공(人功)이 더 드나니,
틈틈이 나물 밭도 북돋아 매 가꾸소.
집터 울밑 돌아가며 잡풀을 없게 하소.
날이 새면 호미 들고 긴긴 해 쉴 새 없어
땀 흘려 흙이 젖고 숨 막혀 기진할 듯,
때마침 점심밥이 반갑고 신기(新奇)하다.
정자(亭子)나무207 그늘 밑에 좌차(座次)를208 정한 후에,
점심 그릇 열어 놓고 보리단술 먼저 먹세.
반찬이야 있든 없든 주린 창자 메인 후에,
청풍(淸風)에 취포(醉飽)하니209 잠시간 낙(樂)이로다.
농부야 근심 말라 수고하는 값이 있네.
오조210 이삭 청대콩이211 어느 사이 익었구나.
일로 보아 짐작하면 양식(糧食) 걱정 오랠쏘냐.
해진 후 돌아올 제 노래 끝에 웃음이라.
애애(靄靄)한212 저녁내는 산촌에 잠겨 있고,
월색(月色)은 몽롱(朦朧)하야213 밭길에 비취도다.
늙은이 하는 일도 바이없을쏘냐.214
이슬아침215 오이 따기 뙤약볕에 보리 널기,
그늘 곁에 누역216 치기 창문 앞에 노217 꼬기와
하다가 고달프면 목침 베고 허리 쉬기.
북창풍(北窓風)에218 잠을 드니 희황씨(羲皇氏)219 적 백성이라.
잠 깨어 바라보니 급한 비 지나가고,
먼 나무에 쓰르라미 석양(夕陽)을 재촉한다.
노파(老婆)의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못하여도,
묵은 솜 들고 앉아 알뜰히 피어내니,
장마 속의 소일(消日)이요,220 낮잠 자기 잊었도다.
삼복(三伏)은221 속절(俗節)이요,222 유두(流頭)는223 가일(佳日)이라.224

원두(圓頭)밭에225 참외 따고 밀 가라 국수하여,
가묘(家廟)에226 천신(薦新)하고227 한때 음식 즐겨보세.
부녀(婦女)는 헤피228 마라 밀기울 한 데 모아
누룩을 디디어라 유두곡(流頭麴)을229 켜느니라.
호박나물 가지김치 풋고추 양념하고,
옥수수 새 맛으로 일없는 이 먹어보소.
장독을 살펴보아 제 맛을 잃지 말고,
맑은 장 따로 모아 익는 족족 떠내어라.
비 오면 덮겠은 즉 독전을230 정(淨)히 하소.
남북촌(南北村)231 합력(合力)하야 삼구덩이232 하여보세.
삼대를 베어 묶어 익게 쩌 벗기리라.
고은 삼 길쌈하고 굵은 삼 바233 드리소.
농가에 요긴키로 곡식과 같이 치네.
산전(山田)234 메밀 먼저 갈고 포전(浦田)은235 나중 가소.

칠월령(七月令)
칠월이라 맹추(孟秋)되니236 입추 처서(立秋處暑)237 절기로다.
화성(火星)은 서류(西流)하고238 미성(尾星)은 중천(中天)이라.239
늦더위 있다 한들 절서(節序)야 속일쏘냐.
비 밑도240 가볍고 바람 끝도 다르도다.
가지 위의 저 매미는 무엇으로 배를 불려,
공중에 맑은 소리 다투어 자랑한고.
칠석(七夕)에241 견우직녀(牽牛織女)242 이별루(離別淚)가243 비가 되어
성긴 비 지나가고 오동잎 떨어질 제,
아미(蛾眉)244 같은 초승달이 서천(西天)에245 걸리도다.
슬프다 농부들아 우리 일은 거의로다.
얼마나 남았으며 어떻게 된다 한고.
마음을 놓지 마소 아직도 멀고멀다.
골 거두어 김매기 벼 포기에 피 고르기,
낫 벼리어246 두렁247 깎기 선산(先山)에 벌초(伐草)하기,248
거름풀249 많이 베어 더미 지어 모아 놓고,
자채논에250 새보기와 오조251 밭에 정의아비,252
밭가에 길도 닦고 복사(覆沙)도253 쳐올리소.
살지고 연(軟)한 밭에 거름하고 익게 갈아,
김장할 무 배추 남 먼저 심어놓고,
가시 울타리 진작 하여 허술함이 없게 하소.
부녀들도 헤아림이 있어 앞일을 생각하소.
베짱이 우는 소리 자네를 위함이라.

저 소리 깨쳐들어 놀라쳐 다스리소.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거풍(擧風)하고254 의복도 포쇄(曝灑)하소.255
명주(明紬)256 오라기 어서 뭉쳐 생량(生凉)257 전 짜내소
늙으신네 기쇠(氣衰)하매258 환절(換節)259 때를 조심하고,
추량(秋凉)이260 가까오니 의복을 유의(留意)하소.
빨래하여 바래이고 풀 먹여 다듬을 제,
월하(月下)의 방망이 소리 소리마다 바쁜 마음,
실가(室家)에261 골몰(汨沒)함이 일변(一邊)은262 재미로다.
소채(蔬菜)263 과실(果實) 흔할 적에 저축을 많이 하소.
박 호박 고지264 만들고 오이 가지 짜게 절여,
겨울에 먹어 보소, 귀물(貴物)이 아니 될까.
면화(棉花) 밭 자주 살펴 올265 다래 피었는가.
가꾸기도 하려니와 거두기에 달렸나니.

팔월령(八月令)
팔월이라 중추(仲秋)되니266 백로 추분(白露秋分)267 절기(節氣)로다.
북극성(北斗星)268 자주 돌아 서천(西天)을269 가리키네.
선선한 조석 기운(朝夕氣運)270 추의(秋意)가271 완연(宛然)하다.272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壁間)에273 들리도다.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百穀)의 이삭 패고274 여물 들어 고개 숙여
서풍(西風)에275 익는 빛은 황운(黃雲)이276 일어난다.
백설(白雪)277 가튼 면화송이 산호(珊瑚)278 가튼 고추 다래,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볕이 명랑(明朗)하다.279
안팎 마당 닦아놓고 발채 망구280 장만하소.
면화 따는 다래끼에281 수수 이삭 콩 가지요,
나무꾼 돌아올 제 머루 다래 산과(山果)로다.282
뒷동산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世上)이라,
아람도283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자.
명주(明紬)를284 끊어내어 추양(秋陽)에285 마전하여286
쪽들이고 잇들이니287 청홍(靑紅)이 색색이라.
부모님 연만(年滿)하니288 수의(壽衣)를289 유의(留意)하고,290
그나마 마르재어291 자녀의 혼수(婚需)하세.292
집 위에 굳은 박은 요긴(要緊)한 기명(器皿)이라.293
댑싸리294 비를 매어 마당질에295 쓰오리라.
참깨 들깨 거둔 후에 중간 올여296 타작(打作)하고,297
당배 발 녹두 말을 아쉬워 작전(作錢)하랴.298

장 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
북어쾌299 젓조기로 추석 명일(秋夕名日)300 쉬어보세.
신도주(新稻酒)301 올벼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先山)에 제물(祭物)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
며느리 말미 받아 본집에 근친(覲親)갈302 제,
개 잡아 삶아 얹고 떡고리며 술병이라.
초록 장옷303 반물치마304 단장하고 다시 보니,
여름 동안 지친 얼굴 소복(蘇復)이305 되었느냐.
중추야(中秋夜)306 밝은 달에 지기(志氣)307 펴고 놀고 오소.
금년할 일 못 다하여 명년 계교(計較)하오리라.308
밀대 베어 더운갈이309 모맥(麰麥)을310 추경(秋耕)하세.311
끝끝내 못 익어도 급한 대로 거두고 경작하소.
인공(人功)만 그러할까, 천시(天時)도312 이러하니,
반각(半刻)도313 쉴 새 없이 마치며 시작하느니.

구월령(九月令)
구월이라 계추(季秋)되니314 한로 상강(寒露霜降)315 절기(節氣)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 기러기 언제 왔는고.
벽공(碧空)에316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한다.
만산(萬山)의 풍엽(楓葉)은317 연지(臙脂)를318 물들이고,
울밑에 황국화(黃菊花)는 추광(秋光)을319 자랑한다.
9월 9일 가절(佳節)이라,320 환전(花煎)하여 천신(薦新)하세.321
절서(節序)를 따라가며 추원보본(追遠報本)322 잊지 마소.
물색(物色)은323 좋거니와 추수(秋收)가324 시급(時急)하다.
들 마당 집 마당에 개상(床)에325 탯돌이라.326
무논은 베어 깔고 건답(乾畓)은327 베 두드려,
오늘은 정근벼요, 내일은 사발벼라.
밀따리 대추벼와 등트기 경상벼라.
들에는 조 피 더미 집 가에 팥 콩 가리.328
벼 타작 마친 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
비단차조 이부꾸리 매눈이콩 황부대를
이삭으로 먼저 잘라 후씨로329 따로 두소.
젊은이는 태질이요,330 계집사람 낫질이라.331
아이는 소 몰리고 늙은이 섬 우기기,
이웃집 울력하여 제일하듯 하는 것이
뒷목추기332 짚 널기와 마당 끝에 키질하기,333
일변으로 면화 틀기 씨앗 소리 요란하다.
틀을 차려 기름 짜기 이웃끼리 합력하세.

등유(燈油)도334 하려니와 음식도 맛이 있네.
밤에는 방아 찧어 밥쌀을 장만할 제,
찬 서리 긴긴 밤에 우는 아기 돌아볼까.
타작 점심 하오리라 황계 백주(黃鷄白酒)335 부족할까.
새우젓 계란찌개 상찬(上饌)으로336 차려 놓고,
한가을337 흔할 적에 과객(過客)도338 청하나니,
한 동내 이웃하야 한들에 농사할 제,
수고도 나눠 하고 없는 것도 서로 도와
이 때를 만났으니 즐기기도 같이 하세.
아무리 다사(多事)하나 농우(農牛)를 보살펴라.
조피 때 살찌게 해 제 공(功)을 갚으리라.

시월령(十月令)
시월은 맹동(孟冬)이라,339 입동 소설(立冬小雪)340 절기(節氣)로다.
나뭇잎341 떨어지고 고니 소리 높이 난다.
들어라 아이들아 농공(農功)을342 필(畢)하여도,343
남은 일 생각하야 집안 일 마저 하세.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을 하오리라.
앞내에 정(淨)히 씻어 염담(塩淡)을344 맞게 하고,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젓국지345 장아찌라.
독 곁에 중두리요, 바탱이346 항아리라
양지(陽地)에347 가가(假家)348 짓고 짚에 싸 깊이 묻고,
박이무349 아람 말도 얼지 않게 간수하소.
방의 고래 구두질과 바람벽 맥질하기,
창호(窓戶)도 발라 놓고 쥐구멍도 막으리라.
수수대로 덧울하고 외양간에 떼적치고,
깍지도350 묶어 세고 과동시(過冬柴)351 쌓아놓고,
우리 집 부녀들아 겨울옷 지었느냐.
술 빚고 떡을 하라, 강신(降神)352 날 가까웠다.
꿀 꺾어 단자(團子)하고353 메밀 아서 국수하소.
소 잡고 돼지 잡으니 음식이 풍비(豐備)하다.354
들 마당에 차일(遮日)355 치고 동내 모아 자리 포진(鋪陳),356
노소 차례(老少次例) 틀릴세라, 남녀 분별(男女分別) 각각하소.
삼현(三絃)357 한 패 얻어오니 화랑(花郞)이358 줄무지라.359
북치고 소리하니 여민락(與民樂)이360 제법이라.
이풍헌(李風憲)361 김첨지(金僉知)는362 잔말 끝에 취도(醉倒)하고,363
최권농(崔勸農)364 강약정(姜約正)은365 체궈리366 춤을 춘다.
잔(盞) 진지하올367 적에 동장(洞長)님 상좌(上座)하여,368

잔 받고 하는 말씀 자세히 들어보소.
어와 오늘 노름 이 노름이 뉘 덕인고.
천은(天恩)도369 그지없고 국은(國恩)도370 망극(罔極)하나,371
다행이 풍년만나 기한(飢寒)을372 면(免)하도다.
향약(鄕約)은373 못하여도 동헌(洞憲)이야374 없을쏘냐.
입효 출공(入孝出恭)375 대강 알아 도리를 잃지 마소.
사람의 자식 되어 부모 은혜 모를쏘냐.
자식을 길러보면 그제야 깨달으리.
천신만고(千辛萬苦)376 길러내어 남혼여가(男婚女嫁)377 필(畢)하오면,
제각각 몸만 알아 부모 봉양(父母奉養) 잊을쏘냐.
기운(氣運)이 쇠진(衰盡)하면378 바라느니 젊음이라.
의복 음식(衣服飮食) 잠자리를 각별히 살펴드려,
행여나 병(病)나실까 밤낮으로 잊지 마소.
고까우신379 마음으로 걱정을 하실 적에
중중거려380 대답 말고 화기(和氣)로 풀어내고,
들어온 지어미는 남편의 거동(擧動)보아
그대로 본을 뜨니 보는데 조심하소.
형제는 한 기운(氣運)이381 두 몸에 나누었으니,
귀중하고 사랑함이 부모의 다음이라.
네 것 내 것 계교(計較)382 마소, 남남끼리 모인 동서(同壻),383
틈나서 하는 말을 귀에 담아 듣지 마소,
자연히 귀순(歸順)하리.384
행신(行身)에385 먼저 할일 공순이 제일이라.
내 늙은이 공경할 제 남의 어른 다를쏘냐.
말씀을 조심하야 인사(人事)를 잃지 마소.
하물며 상하분의(上下分義)386 존귀(尊貴)가387 현격(懸隔)하다.388
내 도리 극진하면 죄책(罪責)을389 아니 보리.
임금의 백성 되어 은덕으로 사라가니,
거미 가튼 우리 백성 무엇으로 갚아볼까.
일 년의 환자 신역(還子身役)390 그 무엇 많다 할꼬.
한번에 필납(畢納)함이391 분의(分義)에 마땅하다.
하물며 전답(田畓) 구실392 토지로 분등(分等)하니,393
소출(所出)을394 생각하면 왕세(王稅)를395 거납(拒納)하랴.396
한 동내 몇 호수(戶數)에 각성(各姓)이 거생(居生)하여,397
신의(信義)를398 아니 하면 화목(和睦)을 어찌할꼬.
혼인 대사(婚姻大事)399 부조(扶助)하고400 상장 우환(喪葬憂患)401 보살피며,
수화(水火))402 도적(盜賊) 구원하고 유무 칭대(有無稱貸)403 서로 하여
날보다 요부(饒富)한404 이 용심(用心)405 내어 시비(是非)406 말고,

그 중에 환과 고독(鰥寡孤獨)407 자별(自別)히408 구휼(救恤)하소.409
제 각각 정한 분복(分福)410 억지로 못하나니,
자내들 헤어보아 내 말을 잊지 마소.
이대로 하여 가면 잡(雜)생각411 아니 나리.
주색잡기(酒色雜技)하는412 사람 초두(初頭)부터413 그리할까.
우연히 그릇 들어 한 번하고 두 번하면,
마음이 방탕(放蕩)하야 그칠 줄 모르나니,
자네들 조심하야 적은 허물 잊지 마소.

십일월령(十一月令)
십일월은 중동(仲冬)이라,414 대설 동지(大雪冬至)415 절기로다.
바람 불고 서리치고 눈 오고 얼음 언다.
가을에 거둔 곡식 얼마나 하였던고.
몇 섬은 환(換)하고416 몇 섬은 왕세(王稅)하고,417
얼마는 제반미(祭飯米)요,418 얼마는 씨앗이며,
도지(賭地)도419 되어내고 품값도 갚으리라.
시겟돈420 장변리(場邊利)를421 낱낱이 수쇄(收刷)하니,422
엄부렁하든423 것이 나머지 바이없다.424
그러한들 어찌 할고 농량(農糧)이나425 여투리라.426
콩기름 우거지도 조반석죽(朝飯夕粥)427 다행하다.
부녀(婦女)야 네 할 일이 메주 쑬 일 남았도다.
익게 삶고 매우 찧어 띄워서 재워 두소.
동지(冬至)는428 명일(名日)이라 일양(一陽)이 생(生)하도다.429
시식(時食)으로430 팥죽 쑤어 인리친척(隣里親戚)431 나눠 먹세.
새 책력 반포(頒布)하니432 내년 절후(節候)433 어떠한고.
해 짧아 덧없고 밤이 길어 지루하다.
공채 사채(公債私債) 요량(料量)하니434 관리 면임(官吏面任)435 아니 온다.
시비(柴扉)를 닫았으니436 초옥(草屋)이437 한가하다.
단귀(短晷)에438 조석(朝夕)하니439 자연히 틈 없나니,
등잔불 긴긴 밤에 길쌈을 힘써 하소.
베틀 곁에 물레 놓고 틀고 타고 잣고 짜네.
자란아이 글 배우고 어린 아이 노는 소리,
여러 소리 짓거리니 실가(室家)의440 재미로다.
늙은이 일 없으니 직이나441 매어보자.
외양간 살펴보아 여물을 가끔 주소.
깃을442 주어 받은 거름 자주 쳐야 모이나니.

십이월령(十二月令)

십이월은 계동(季冬)이라,443 소한 대한(小寒大寒)444 절기(節氣)로다.
설중(雪中)의 봉만(峰巒)들은445 해 저문 빛이로다.
세전(歲前)에446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설빔447 의복(衣服) 장만하고,
무명 명주(明紬)448 끊어내어 온갖 무색449 들어내니,
자지(紫芝) 보라 송화색(松花色)에450 청화(靑華) 갈매 옥색(玉色)이라.451
일변(一邊)으로452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도다.
입을 것 그만 두고 먹을 것 장만하세.
떡쌀은 몇 말이며 술쌀은 몇 말인고.
콩을 가라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 빚소.
세육(歲肉)은453 계(契)를454 믿고 북어(北魚)는455 장에서 사세.
납평(臘平)날456 창애457 묻어 잡은 꿩 몇 마리인고.
아이들 그물 쳐서 참새도 짖어 먹세.
깨강정 콩강정에458 곶감 대추 생률(生栗)이라.459
주준(酒樽)에460 술 드리니 돌 틈에 샘물 소리.
앞뒷집 타병성(打餠聲)은461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네.
새 등잔 새발심지462 장등(長燈)하야463 세울 적에,
윗방 봉당(封堂)464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歲拜)하는구나.465
어와 내말 듣소, 농업(農業)이 어떠한고.
종년(終年) 근고(勤苦)한다466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네.
위로는 국가 봉용(奉用)467 사계(私計)로는468 제선 봉친(祭先奉親),469
형제 처자(兄弟妻子) 혼상(婚喪)470 대사(大事))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所出)471 아니라면 돈 지당472 어이할꼬.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배를 부려 선업(船業)하고473 말을 부려 장사하기.
전당(典當)474 잡고 빚 주기와 장(場)판에475 체계(遞計)476 놓기.
술장사 떡 장사며 술막질477 가게보기.
아직은 흔전하나478 한번을 뒤뚝하면
파락호(破落戶)로479 빚꾸러기 사던 곳 터도 없다.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절기(節氣)도 진퇴(進退)480 있고 연사(年事)도 풍흉(豊凶)이481 있어
수한 풍박(水旱風雹)482 잠시 재앙(災殃)483 없기야 하랴마는,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家率)이 일심(一心)하면,484
아무리 살년(殺年)에도485 아사(餓死)를486 면하느니,
제 시골 제 지키어 소동(騷動)할 뜻 두지 마소.
황천(皇天)이 지인(至仁)하사487 노(怒)하심도488 일시(一時)로다.

[각주]

3) 조판(肇判) : 처음 쪼개어져 갈라지는 것.

4) 일월성신(日月星辰) : 해와 달과 별.

5) 도수(度數) : 온도(溫度)·광도(光度)·각도(角度) 등의 수효.

6) 전차(躔次) : 별이 운행하는 길. 또는, 별의 자리.

7) 춘추분(春秋分) : 춘분과 추분.

8) 일행(日行) : 1년 24 절후의 순환에 따라 하루의 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함을 두고 이 르는 말.

9) 상현(上弦) 하현(下弦) 망회삭(望晦朔) : 초현(初弦). 매달 음력 7~8일 경에 뜨는 달의 형태. 매달 음력 22~23일 경에 뜨는 달의 형태. 음력 보름과 그믐과 초하루.

10) 월륜(月輪) 영휴(盈虧) : 둥근 달. 또는 그 달의 둘레. 차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

11) 북극(北極) : 북극성을 두고 이름.

12) 매삭(每朔) : 매달. 절후(節候) : 절기(節氣). 1년을 24 절기로 나눈 기후의 표준점. 15일 내지는 16 일에 한 번씩 돌아옴.

13) 일망(一望) : 한 보름 동안.

14) 성세(成歲) : 한 해를 이루는 것.

15) 요순(堯舜) : 중국 고대의 요임금과 순임금.

16) 역법(曆法) 창기(創基) : 천체의 주기적 현상을 기준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기는 방법. 기초를 열기 시작하는 것.

17) 천시(天時) : 낮과 밤, 더위와 추위 등과 같이 때를 따라 돌아가는 자연 현상.

18)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夏)나라의 우(禹)임금을 이르는 말.

19) 인월(寅月) 세수(歲首) : 월건(月建)의 지지(地支)가 인(寅)이 되는 달. 즉, 음력 정월. 쎄초(歲初). 해의 첫머리.

20) 주(周)나라 : 중국의 고대 왕조.(1050~256 B.C)

21) 자월(子月) : 월건(月建)의 지지(地支)가 자(子)로 된 달. 즉, 음력 동짓달.

22) 한서온량(寒暑溫凉) : 춥고 덥고 따뜻하고 서늘함.

23) 사시(四時) : 사서(四序). 춘·하·추·동의 사철.

24) 공부자(孔夫子) : 공자(孔子)의 높임말.

25) 하령(夏令) : 인월(寅月)로 세수(歲首)하던 하우씨(夏禹氏)의 역법을 두고 이름.

26) 맹춘(孟春) : 초봄. 음력 정월을 달리 이르는 말.

27) 입춘(立春) 우수(雨水) : 일년 24절기의 첫째. 양력으로 2월 4일 경임. 일년 24절기의 둘째. 양력으로 2월 19일 경임.

28) 간학(澗壑) :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29) 빙설(氷雪) : 설빙(雪氷). 어름과 눈.

30) 평교 광야(平郊廣野) : 뜰 밖 넓은 들. 시외에 있는 넓고 평평한 들.

31) 운물(雲物) : 기상에 딸라 움직이는 구름의 빛깔. 태양 주위에 움직이는 구름 빛깔.

32) 애민 중농(愛民重農) :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것. 본 가사의 본문에서 '충농'은 '중농'의 와전으로 판단된다.

33) 간측(懇惻) : 간절하고 지성스러움.
34) 권농 윤음(勸農綸音) : 농사를 장려하는 임금의 교서(校書)
35) 방곡(坊曲) : 면(面) 이하의 행정 구역인 이(里)를 이르는 말.
36) 반포(頒布) : 세상에 널리 펴서 알리는 것.
37) 이해(利害) : 득실(得失). 이로움과 해로움.
38) 성의(聖意) : 성지(聖旨). 임금의 뜻.
39) 산전 수답(山田水畓) 상반(相半) : 산에 있는 밭(산밭)과 물이 흔하고 기름진 논(골답). 서로 반반인 것.
40) 풍흉(豊凶) : 풍년과 흉년.
41) 천재(天灾) :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
42) 일년지계 재춘(一年之計在春) : 일년간의 계획은 봄에 세워둔다는 것.
43) 범사(凡事) : 모든 일.
44) 실시(失時) : 실기(失期). 때를 놓치는 것.
45) 종년(終年) : 종세(終歲). 한 해를 마치는 것.
46) 농우(農牛) : 농사일에 부리는 소.
47) 재우다 : 거름을 잘 썩도록 손질하다.
48) 일변(一邊) : 한편. 또는 한쪽 부분.
49) 맥전(麥田) : 보리밭.
50) 세전(歲前) : 세안. 설을 쇠기 전.
51) 보굿 : 굵은 나무줄기의 비늘 같은 껍데기.
52) 정조(正朝) 미명시(未明時) : 원단(元旦). 설날 아침. 아침 날이 채 밝지 않은 때.
53) 시험조(試驗調) : 시험 삼아 하는 그러한 태도.
54) 소국주(小麴酒) : 막걸리의 한 가지.
55) 밑술 : 술을 빚을 때에 누룩·지에밥과 함께 조금 넣는 묵은 술.
56) 삼춘(三春) 백화시(百花時) : 봄의 석 달. 맹춘(孟春)·중춘(仲春)·계춘(季春). 온갖 꽃 만발한 때.
57) 화전일취(花前一醉) : 꽃 앞에서 기분 내어 한바탕 취하는 것.
58)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보름날.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임.
59) 수한(水旱) : 장마와 가뭄.
60) 노농(老農) : 농사에 경험이 많은 늙은 농부.
61) 인리(隣里) : 인동(隣洞). 이웃 동네.
62) 삼삼오오(三三五五) : 서너 사람 또는 너더댓 사람이 여기저기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 는 모양.
63) 물색(物色) : 물건의 빛깔.
64) 세알(歲謁) : 그믐날에나 설날에 사당에 가서 인사드리는 일.
65) 병탕(餠湯) 주과(酒果) : 떡국. 술과 과실. 술과 과실만으로 간략하게 차린 제물(祭物).
66) 신신(新新) : 과일이나 푸성귀 따위가 아주 신선함.
67) 오신채(五辛菜) : 오훈채(五葷菜). 다섯 가지의 자극성이 있는 채소.
68) 육미(肉味) : 고기로 만든 음식.

69) 부럼 : 음력 정월 보름날 새벽에 까먹는 밤·호두·잣·은행·땅콩 따위의 총칭.
70) 생률(生栗) : 날밤. 날것 그대로의 밤.
71) 중춘(仲春) : 봄의 한 창 때. 곧, 음력 2월을 일컫는 말.
72) 경칩(驚蟄) 춘분(春分) : 일년 24절기의 셋째. 양력으로 3월 6일 경임. 일년 24절기의 넷째. 양력으로 3월 21일 경임.
73) 좀생이 : 육련성. 묘성(昴星)의 속칭.
74) 풍흉(豊凶) : 앞에 든 각주 38) 참조.
75) 음청(陰晴) : 흐린 날과 갠 날. 또는, 흐림과 갬.
76) 의구(依舊) : 옛날과 같이 변함이 없음.
77) 맹동(萌動) : 싹이 트는 것.
78) 춘경(春耕) : 봄갈이.
79) 춘모(春牟) : 춘맥(春麥). 봄보리.
80) 원림(園林) 장점(粧點) : 집터에 딸린 숲. 좋은 땅을 가려 집을 짓는 것.
81) 생리(生利) : 이익을 내는 것.
82) 과목(果木) : 과수(果樹).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가꾸는 나무의 총칭.
83) 장원(墻垣) 수축(修築) : 담. 건축물을 고쳐 쌓는 것.
84) 정쇄(精灑) : 매우 맑고 깨끗한 것.
85) 육축(六畜) :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 소·말·양·돼지·닭·개.
86) 우마 계견(牛馬鷄犬) : 소와 말, 그리고 닭과 개.
87) 본초(本草) : 식물·광물·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질병 치료를 위한 물질. 좁게는 식물의 전초(全草)·근(根)·목(木)·피(皮)·과실 종자 등만을 이름.
88) 약재(藥材) : 약재료(藥材料)의 준말.
89) 창백출(蒼白朮) : '삽주'의 결구(結球)하지 않은 뿌리는 창출이요, 결구된 뿌리를 백출이라 하는 바, 이를 함께 이른 말임.
90) 당귀(當歸) 천궁(川芎) : 승검초 뿌리. 미나릿과의 여러해살이풀. 또는, 천궁·궁궁이의 뿌리.
91) 시호(柴胡) 방풍(防風) : 미나릿과의 여러해살이풀. 이의 뿌리는 약재에 쓰임. 미나릿과의 여러해살이풀. 또는, 이의 묵은 뿌리.
92) 산약(山藥) 택사(澤瀉) : 마의 뿌리. 무논·밭·습지에서 나는 택사과의 여러해살이풀. 또는 이의 덩이뿌리.
93) 모춘(暮春) : 만춘(晩春). 늦은 봄. 곧, 음력 3월을 일컫는 말.
94) 청명(淸明) 곡우(穀雨) : 일년 24절기의 다섯째. 양력으로 4월 5일경임. 일년 24절기의 여섯째. 양력으로 4월 20일경임.
95) 재양(載陽) : 절기가 따뜻해지는 것.
96) 백화(百花) : 온갖 꽃.
97) 난만(爛漫) : 꽃이 만발하여 한창 흐드러짐.
98) 화간(花間) : 꽃과 꽃 사이.
99) 득시(得時) : 좋은 시기를 얻는 것.
100) 자락(自樂) : 스스로 즐기는 것.

101) 한식(寒食) :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를 하는 등 묘를 돌아봄.
102) 백양(白楊)나무 : 사시나무.
103) 우로(雨露) : 비와 이슬.
104) 감창(感愴) : 감모(感慕)하는 마음이 더하여 슬픔.
105) 주과(酒果) : 술과 과일.
106) 풍비(豊備) : 풍부하게 갖추는 것.
107) 처자 권속(妻子眷屬) : 아내와 자식, 그리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
108) 두곡(斗穀) : 말곡식.
109) 삶이 : 못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처음 삶은 논에 볍씨를 뿌리는 일.
110) 범연(泛然) :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한 것.
111) 포전(浦田) : 갯가에 있는 밭.
112) 서속(黍粟) : 기장과 조.
113) 산전(山田) : 산밭. 산에 있는 밭.
114) 두태(豆太) : 콩과 팥.
115) 그루 : 한 해에 같은 땅에 농사짓는 횟수.
116) 상환(相換) : 서로 바꾸는 것.
117) 치포(治圃) : 채소밭을 가꾸는 것.
118) 동아 : 동과(冬瓜).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119) 가자(架子) : 초목의 가지를 받쳐 세운 시렁.
120) 개바자 바자 : 갯버들의 가지로 엮어 만든 바자.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대·갈대·수수깡·싸리 따위로 발처럼 엮은 물건.
121) 잠농(蠶農) : 누에농사.
122) 잠실(蚕室) : 누엣 간. 누에를 치는 방.
123) 소쇄(掃灑) : 비로 쓸고 물을 뿌리는 것.
124) 제구(諸具) : 여러 가지 도구,
125) 한식(寒食) : 앞에 든 각주 101) 참조.
126) 과목(果木) : 과수(果樹). 앞에 든 각주 82참조.
127) 참배 : 먹을 수 있는 보통의 배를, 똘배·문배에 대하여 일컫는 말.
128) 고사(古査) : 오래된 나무의 그루터기.
129) 천한 백옥(天寒白屋) : 추운 날의 초가집이라는 뜻으로, 추운 날씨에 떠는 가난한 생활을 이르는 말.
130) 풍설(風雪) : 바람과 눈. 눈바람.
131) 정사(政事) : 다스리는 일.
132) 향채(香菜) : 향기로운 나물.
133) 산채(山菜) : 산나물.
134) 가효(佳肴) : 맛 좋은 안주.
135) 맹하(孟夏) : 초여름. 음력 4월을 달이 이르는 말.

136) 소만(立夏) 소만(小滿) : 일년 24절기의 일곱째. 양력으로 5월 6일경임. 일년 24절기의 하나. 양력으로 5월 21일경임.
137) 청화(淸和) : 맑고 화창함.
138) 잠공(蠶功) : 누에농사.
139) 방장(方壯) : 바야흐로 한창인 것.
140) 방적(紡績) : 동식물의 섬유를 가공하여 실을 만드는 일.
141) 농량(農糧) : 농사를 짓는 동안 먹을 양식.
142) 환자(還子) : 환곡(還穀). 나라에서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춘궁기기에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다가 추수 후 돌려받던 곡식 및 그 제도.
143) 승시(乘時) : 때를 타는 것.
144) 수도(水道) : 물이 흐르는 물길.
145) 우루처(雨漏處) : 비가 새는 곳.
146) 개와(蓋瓦) : 기와로 지붕을 이는 것. 가사 원문에서의 '改瓦'는 지붕의 기와를 다시 손보아 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蓋瓦'의 오인인 듯함.
147) 음우(陰雨) : 오래 내리는 궂은 비. 또는, 음산하게 오는 비.
148) 봄낳이 : 봄에 짠 무명.
149) 마전 : 생필륙을 삶거나 빨아서 바래는 일.
150) 봉왕(蜂王) : 여왕벌.
151) 군신분의(君臣分義) :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야 할 직분과 의리.
152) 파일(八日) : 초파일. 욕불일(浴佛日). 석가(釋迦)가 탄생한 음력 4월 8일을 이르는 말.
153) 현등(懸燈) : 등불을 높이 매다는 일.
154) 불긴(不緊) : 긴요하지 아니함.
155) 천렵(川獵) :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
156) 잔풍(殘風) : 잔잔한 바람.
157) 벽계수(碧溪水) : 푸르고 맑은 시냇물.
158) 백사장(白沙場) : 강가·바닷가의 흰 모래가 깔려 있는 곳.
159) 수단화(水丹花) : 연화(蓮花). 연꽃.
160) 촉고(數罟) : 눈을 썩 잘게 떠서 만든 그물.
161) 은린옥척(銀麟玉尺) : 물고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또는,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162) 반석(盤石) 노구 : 너럭바위. 넓고 펀펀한 큰 돌. 노구솥의 준말.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솥. 자유로이 옮겨 가며 따로 걸고 사용함.
163) 팔진미(八珍味) : 여덟 가지의 맛좋은 진기한 음식.
164) 오후청(五侯鯖) : 중국 한나라 성제(成帝) 때에 누호(婁護)가 성제의 외삼촌인 오후(五侯)가 보내준 갖가지 고기와 생선을 맛있게 먹었다는 고사로 연유해서, 매우 맛있는 진미(珍味)를 이름.
165) 중하(仲夏) : 여름의 한창때. 음력 5월을 일컫는 말.
166) 망종(芒種) 하지(夏至) : 일년 24절기의 하나. 양력으로 6월 6일경임. 일년 24절기의 하나. 양력으로 6월 21일경으로,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때임.
167) 맥추(麥秋) : 보릿가을. 보리가 익은 때.

168) 타맥장(打麥場) : 보리타작하는 마당.
169) 졸연(卒然) : 갑작스럽게.
170) 흥성(興盛) : 매우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171) 담석(儋石) : '儋'은 두 항아리, '石'은 한 항아리라는 뜻으로, 소량(少量)이나 적은 분량의 곡식을 말함.
172) 진(盡) : 다해버리는 것.
173) 신구상계(新舊相繼) : 묵은 것에 뒤따라 새것이 서로 이어짐.
174) 그루 그루갈이 : 한 해에 같은 땅에 농사짓는 횟수.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두 번 곡식을 수확하는 토지의 이용법.
175) 잠농(蚕農) : 누에농사.
176) 누에섶 : 잠족(蠶蔟). 누에가 고치를 짓도록 마련한 섶.
177) 폭양(曝陽) : 뜨겁게 내리쬐는 볕.
178) 쌀고치 무리고치 : 희고 굵으며 야무지게 지은 좋은 고치. 군물이 들어 깨끗하지 못한 고치.
179) 자애 : 자새. 새끼나 바 따위를 꼬거나 실을 감는 데에 쓰는 작은 얼레.
180) 빙설(氷雪) : 얼음과 눈.
181) 금슬(琴瑟) : 거문고와 비파.
182) 적공(積功)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쓰는 것. 또는, 공을 쌓는 것.
183) 단오(端午) : 음력 5월 5일로,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184) 물색(物色) : 물건의 빛깔.
185) 생신(生新) : 산뜻하고 새로움.
186) 영계(鷄) : 약병아리. 병아리보다 작은 조금 큰 닭.
187) 향촌(鄕村) : 시골. 또는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 마을.
188) 추천(鞦韆) : 그네.
189) 청홍상(靑紅裳) 창포(菖蒲)비녀 청홍상(靑紅裳) 창포(菖蒲)비녀 : 단오절에 청홍상을 입고 창포비녀를 한 여자들을 두고 이름. 푸른 치마와 붉은 치마. 창포잠(菖蒲簪). 창포 뿌리를 깎아 붉게 물들인 비녀. 부녀들이 단오절에 역병(疫病)을 물리치는 액땜으로 꽂음. 가사 원문에서의 '장포'는 '창포'의 와전으로 판단된다.
190) 가절(佳節) : 좋은 때. 좋은 철.
191) 상천(上天) 지인(至仁) : 하느님. 지극히 어질다.
192) 유연(油然) 작운(作雲) : 구름이 피어나는 모양이 왕성함. 구름이 일어남.
193) 패연(沛然) : 비가 쏟아지는 기세가 세참.
194) 사천 : 부녀자가 살림살이에 쓸 돈에서 절약하여 남몰래 모아두는 것. 개인이 사사로이 가진 돈. 여기서는 사사로이 그것만을 즐긴다는 의도에서 이른 말임.
195) 바라지 : 음식이나 옷을 대주는 등 여러 가지로 돌보아 주는 일.
196) 찬국 : 냉국. 차물에 간장이나 초를 쳐서 만들거나, 또는 맑은 장국을 끓여 차게 식힌 국물. 특히 여름에 먹음. 가사 원문에서의 '창국'은 '찬국'의 와전으로 판단된다.
197) 능 : 빠듯하지 않고 넉넉하게 잡은 여유.
198) 메나리 : 농부들이 논밭에서 일하면서 부르는 민요의 하나. 산유화(山有花).

199)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200) 계하(季夏) : 늦여름. 음력 6월.
201) 소서(小暑) 대서(大暑)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7월 7일경임.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 7월 23일경에 듦. 일년 중 가장 더운 때임.
202) 대우(大雨) 행시(行時) : 큰비. 때를 적당히 맞추어 오는 것.
203) 악머구리 : 요란스럽게 잘 운다고 하여 참개구리를 이르는 말.
204) 대우 : 보리·밀·조 따위를 심은 밭이랑에 콩이나 팥 따위를 심는 일.
205) 지력(地力) : 땅힘. 토지의 생산력.
206) 갈마들여 : 서로 번갈아 들이어.
207) 정자(亭子)나무 :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
208) 좌차(座次) : 좌석의 차례.
209) 취포(醉飽) : 취차포(醉且飽).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부르도록 먹는 것.
210) 오조 : 일찍 익는 조.
211) 청대콩 : 청태(靑太). 덜 익어 아직 물기가 있는 콩.
212) 애애(靄靄) : 구름이나 안개가 많이 끼어 있음을 이름. 또는, 평화로운 기운이 있는 것.
213) 몽롱(朦朧) : 달빛이 흐릿함. 어른어른하여 희미함.
214) 바이없다. 바이 : 전혀 없다. 아주 전혀.
215) 이슬아침 :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
216) 누역 : 도롱이. 짚·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우장(雨裝). 녹사의(綠簑衣).
217) 노 : 실·삼·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꼰 줄.
218) 북창풍(北窓風) : 북쪽으로 낸 창에 부는 시원한 창 바람.
219) 희황씨(羲皇氏) : 삼황(三皇)의 첫머리에 꼽는 중국의 전설상의 제왕 또는 신.
220) 소일(消日) : 마음을 붙여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내는 것.
221) 삼복(三伏) : 삼경(三庚).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의 총칭.
222) 속절(俗節) : 제삿날 이외에 철을 따라 선영(先塋)이나 사당에 차례를 지내는 날. 곧 한식·단오·추석 따위.
223) 유두(流頭) : 우리나라 고유 명절의 하나. 음력 유월 보름날임.
224) 가일(佳日) : 좋은 날.
225) 원두(圓頭)밭 : 원두를 놓은 밭. 원두(圓頭) : 밭에 심은 오이·수박·참외·호박 따위의 총칭.
226) 가묘(家廟) : 한 집안의 사당(祠堂).
227) 천신(薦新) : 그 해에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로 신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
228) 헤피 : 헤프게.
229) 유두국(流頭麵) : 유두날에 만든 누룩.
230) 독전 : 옹기를 염두한 말. 전이 달린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231) 남북촌(南北村) : 남촌(南村)과 북촌北村)
232) 삼구덩이 : 삼을 찌는 구덩이.
233) 바 : 여러 가닥을 꼬아 드린 굵은 줄. 여기서는 삼을 꼬아 드린 바를 말함.
234) 산전(山田) : 산밭. 산에 있는 밭.

235) 포전(浦田) : 갯가에 있는 밭.
236) 맹추(孟秋) : 초가을. 음력 7월을 달리 이르는 말.
237) 입추(立秋) 처서(處暑)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8월 8일경임.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8월 23일경임.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짐.
238) 화성(火星) 서류(西流) : 태양계의 넷째 벙 행성. 지구 궤도 바로 외측에 궤도가 있음. 서쪽으로 흐르는 것.
239) 미성(尾星) 중천(中天) : 28수(宿)의 여섯째 별자리의 별들. 죽공(中空). 하늘의 한가운데.
240) 비 밑 : 비가 온 뒤끝.
241) 칠석(七夕) : 음력 7월 초이렛날의 밤. 이 날 밤에 경우성과 직녀성이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이 있음.
242) 견우직녀(牽牛織女) : 견우성(牽牛星)과 직녀(織女星). 칠석(七夕)에 은하수를 건너 서로 만난다는 전설로 유명함.
243) 이별루(離別淚) : 이별의 눈물.
244) 아미(蛾眉) :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 곧, 미인의 눈썹. 가사의 원문에서 '峨嵋'라 함은 '蛾眉'의 오기로 판단된다.
245) 서천(西天) : 서쪽 하늘.
246) 벼리다 : 날이 무딘 연장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 날카롭게 만들다.
247) 두렁 : 논이나 밭의 가장자리로 작게 쌓은 둑이나 언덕.
248) 벌초(伐草) : 무덤의 잡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것.
249) 거름풀 : 거름에 쓰기 위해 벤 풀이나 나뭇잎.
250) 자채논 : 자채볏논의 준말.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논.
251) 오조 : 일찍 익는 조.
252) 정의아비 : 허수아비의 옛말.
253) 복사(覆沙) : 모래가 물에 몰려 논밭 같은 데에 덥혀 쌓임. 또는, 그 모래.
254) 거풍(擧風) : 바람에 쐐는 것.
255) 포쇄(曝灑) : 축축한 것을 바람에 씨고 볕에 말리는 것.
256) 명주(明紬) :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257) 생량(生凉) : 가을이 되어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 것.
258) 기쇠(氣衰) : 기운이 줄어 약해지는 것.
259) 환절(換節) : 철이 바뀌는 것.
260) 추량(秋凉) : 가을의 서늘하고 맑은 기운.
261) 실가(室家) : 집. 또는, 가정.
262) 일변(一邊) : 한편으로는.
263) 소채(蔬菜) : 채소.
264) 고지 : 호박·가지·고구마 등을 잘게 썰거나 길게 오려서 말린 것.
265) 올 : 열매의 익는 정도가 빠름을 나타내는 말.
266) 중추(仲秋) : 가을이 한창인 때. 음력 8월을 두고 이름.
267) 백로(白露) 추분(秋分)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9월 8일경임. 점차 가을다운 기운이 더해

지는 때.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9월 23일경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음.
268) 북두성(北斗星) : 북두칠성의 준말. 큰곰자리의 일곱 개의 별. 북쪽 하늘에 국자 모양으로 이어지므로 붙여진 이름임.
269) 서천(西天) : 서쪽 하늘.
270) 조석 기운(朝夕氣運) : 아침저녁으로 느끼는 날씨의 기운.
271) 추의(秋意) : 가을다운 기분이나 멋.
272) 완연(宛然) : 어떤 기운이 뚜렷함.
273) 벽간(壁間) : 벽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의 부분.
274) 백곡(百穀)의 이삭 패고 : 이 어구는 가사의 원문에 없는 구절인데, 이본에 의하여 보충한 내용이다. 다음의 어구 '여물 들어 고개 숙여' 만으로는 전후의 뜻이 연결되지 않음으로 미루어 잘못 전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보충한 어구이다.
275) 서풍(西風) : 종풍(終風).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276) 황운(黃雲) : 벼가 누렇게 익은 넓은 들판의 비유.
277) 백설(白雪) : 흰 눈.
278) 산호(珊瑚) : 산호과의 강장동물이 죽은 뒤에 남은 뼈대. 가공하여 장식품을 만드는데, 예로부터 칠보(七寶)의 하나로 쳐 왔음.
279) 명랑(明朗) : 흐릿한 기운 없이 맑고 환함.
280) 발채 망구 :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물건. 망태기의 옛말. 가는 새끼나 노로 만든 그릇. 물건을 담아서 들고 다니는 데에 쓰는 그릇.
281) 다래끼 : 아가리가 좁고 바닥이 넓은 작은 바구니.
282) 산과(山果) : 산과실. 산에서 나는 과실.
283) 아람 :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나무에 달린 채 저절로 충분히 익은 상태. 또는 그 열매.
284) 명주(明紬) :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285) 추양(秋陽) : 가을 볕.
286) 마전 : 생피륙을 삶거나 빨아서 바래는 일.
287) 쪽들이다 쪽 잇들이다 잇 : 쪽의 물감을 들이다.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밭에서 재배하는 공예작물인데, 잎은 물감으로 쓰임. 잇꽃의 꽃부리에서 얻는 붉은 빛의 물감을 들이다. 잇꽃. 또는, 잇꽃의 꽃부리에서 얻는 붉은 빛의 물감
288) 연만(年滿) : 연만(年晩). 연로(年老). 나이가 많아서 늙음.
289) 수의(壽衣) : 염습(殮襲)할 때에 시체에 입히는 옷.
290) 유의(留意) : 마음에 두는 것.
291) 마르재다 : 마르다. 옷감이나 재목 등을 치수에 맞추어 베거나 자르다.
292) 혼수(婚需) : 혼물(婚物). 혼인에 드는 물건.
293) 기명(器皿) : 그릇붙이. 살림살이에 쓰는 온갖 그릇.
294) 댑싸리 : 가지가 많은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로는 비를 만듦.
295) 마당질 : 타작(打作). 곡식의 이삭을 털어 알곡을 거두는 일.
296) 올여 올벼 : 올벼를 두고 이름. 조도(早稻). 철이 이르게 익는 벼.
297) 타작(打作) :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어 알곡을 거두는 일. 흔히, 도리깨로 쳐서 떨어냄.

298) 작전(作錢) :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
299) 북어쾌 : 마른 명태 스무 마리를 한 줄에 꿴 것.
300) 추석(秋夕) : 가위.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8월 15일.
301) 신도주(新稻酒) : 햅쌀로 빚은 술.
302)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뵘.
303) 장옷 : 장의(長衣). 지난날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로부터 길게 내리쓰던 옷.
304) 반물치마 : 반물 빛깔의 치마. 반물 : 감색. 검은빛을 띤 남빛.
305) 소복(蘇復) : 병이 나은 뒤에 전과 같이 원기가 회복되거나 회복되게 하는 것.
306) 중추야(中秋夜) : 가을이 한창인 음력 8월의 달밤.
307) 지기(志氣) : 기지(氣志). 어떤 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기개.
308) 계교(計較) : 서로 견주어 살피는 것.
309) 더운갈이 : 날이 몹시 가물다가 소나기가 왔을 때에 그 물을 이용하여 논을 가는 일.
310) 모맥(麰麥) : 보리.
311) 추경(秋耕) : 가을갈이.
312) 천시(天時) :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 또는, 낮과 밤, 더위와 추위 등과 같이 때를 따라 돌아가는 자연 현상.
313) 반각(半刻) : 잠간.
314) 계추(季秋) : 늦가을. 음력 9월.
315) 한로(寒露) 상강(霜降)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0월 8일경임. 찬 이슬이 내리는 무렵으로 음력 9월의 절기임.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0월 23일경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임.
316) 벽공(碧空) : 벽천(碧天). 푸른 하늘.
317) 만산 풍엽(萬山楓葉) : 모든 산이 단풍잎으로 물들어 있는 가을 경치.
318) 연지(臙脂) : 자색과 적색을 혼합 물감.
319) 추광(秋光) : 추색(秋色). 앞에 든 각주 224) 참조.
320) 가절(佳節) : 좋은 철, 또는 좋은 때.
321) 환전(花煎) 천신(薦新) : 꽃전. 꽃잎을 붙여 부친 부꾸미. 앞에 든 각주 227) 참조.
322) 추원보본(追遠報本) :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323) 물색(物色) : 물건의 빛깔.
324) 추수(秋收) : 가을걷이. 가을에 익은 고식을 거두어들이는 일.
325) 개상(床) : 볏단이나 보릿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뜨리는 데에 쓰는 재래식 농기구.
326) 탯돌 : 타작할 때 태질에 쓰는 돌.
327) 건답(乾畓) : 마른 논.
328) 가리 : 곡식이나 땔나무 등을 쌓은 더미.
329) 후씨 : 뒷날 쓸 종자.
330) 태질 : 타작의 한 가지. 개상에 볏단이나 보릿단 등을 메어쳐서 낱알을 떠는 일.
331) 낫질 : 낫으로 나무나 풀 등을 베는 일.

332) 뒷목 추기 뒷목 : 뒷목을 추리기. 타작할 때에 벼를 되고 마당에 처진 찌꺼기 곡식.
333) 키질 : 키로 곡식 같은 것을 까부르는 일
334) 등유(燈油) : 등불용의 기름.
335) 황계(黃鷄) 백주(白酒) : 털빛이 누른 닭. 빛깔이 흰 술.
336) 상찬(上饌) : 매우 좋은 반찬.
337) 한가을 : 한창 무르익은 가을철. 또는, 농사일이 한창 바쁜 가을철.
338) 과객(過客) : 지나가는 길손.
339) 맹동(孟冬) : 초겨울. 음력 10월을 달리 이르는 말.
340) 입동(立冬) 소설(小雪)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1월 7일경임.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0월 8일경임.
341) 나뭇잎 : 가사 원문에서 “나잎무”라 함은 이의 오가로 판단된다.
342) 농공(農功) : 농사짓는 일.
343) 필(畢) : 진행이 다함. 마침.
344) 염담(塩淡) : 음식의 간이 짜고 싱거움.
345) 젓국지 : 조기 젓국을 냉수에 타서 국물을 부어 담근 김치.
346) 바탱이 : 중두리와 비슷하나 배가 더 나오고 아가리가 좁은 오지 그릇.
347) 양지(陽地) : 볕이 바로 드는 땅.
348) 가가(假家) : 헐고 옮기기 쉽게 임시로 지은 집.
349) 박이무 : 장다리무. 씨를 받기 위해 장다리꽃이 피게 가꾼 무.
350) 깍지 : 콩 따위의 꼬투리에서 알맹이를 까낸 껍질.
351) 과동시(過冬柴) : 겨울 땔감으로 마련한 나무.
352) 강신(降神) : 음력 10월 성조신(成造神)에게 새로 나온 곡식과 과일로 제사를 올리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비는 날.
353) 단자(團子) : 단자병(團子餠). 둥글게 빚어 만든 떡의 한 가지.
354) 풍비(豐備) : 풍부하게 갖추는 것.
355) 차일(遮日) :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356) 포진(鋪陳) : 잔치 같은 때에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 까는 일.
357) 삼현(三絃) : 거문고·가야금·향비파 등 세 가지 현악기.
358) 화랑(花郞)이 : 광대와 비슷한 놀이꾼의 패.
359) 줄무지 : 생이나 장난꾼의 행상(行喪). 가까운 친구끼리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상여를 메고 가는 일.
360) 여민락(與民樂) : 조선시대 아악의 한 가지. 임금의 거동 때나 궁중 잔치 때에 연주함.
361) 이풍헌(李風憲) 풍헌(風憲) : 이씨 성을 가진 풍헌. 조선시대 향소직(鄕所職)의 하나. 면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왔음.
362) 김첨지(金僉知) 첨지(僉知) : 김씨 성을 가진 어떤 나이든 사람을 낮추어 일컫는 말. 나이 많은 사람을 낮추어 일컫는 말.
363) 취도(醉倒) : 술에 크게 취하여 쓰러지는 것.
364) 최권농(崔勸農) 권농(勸農) : 최씨 성을 가진 권농. 종전에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딸려 농사

를 장려하던 직책. 또는, 그 사람.

365) 강약정(姜約正) 약정(約正) : 강씨 성을 가진 약정.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

366) 체궈리 : 본 가사의 이본 등에서 “體适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춤을 출 때 등장하던 “꼭두각시”를 가리키는 듯함.

367) 진지 : 남을 높여 그가 먹는 밥. 가사 원문에서의 ‘進支’는 이를 한자의 표음으로 취한 표기임.

368) 상좌(上座) : 윗자리. 정면에 자리한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

369) 천은(天恩) : 하늘의 은혜. 또는, 나라 임금의 은혜.

370) 국은(國恩) : 국민이 입는 나라의 은혜.

371) 망극(罔極) : 은혜나 슬픔이 그지없음.

372) 기한(飢寒) :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추움.

373) 향약(鄕約) : 조선시대에 향촌(鄕村)의 자치 규약.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相扶相助)를 목적으로 하였음.

374) 동헌(洞憲) : 향약으로 마련하여 지키던 마을의 규약.

375) 입효 출공(入孝出恭) : 집에서는 부모께 효도하고, 밖에선 어른께 공손히 하는 것.

376) 천신만고(千辛萬苦) : 갖은 애를 쓰며 고생하는 것.

377) 남혼여가(男婚女嫁) : 아들은 장가들고 딸은 시집간다는 뜻으로, 자녀의 혼인.

378) 쇠진(衰盡) : 점점 쇠하여 다 되는 것.

379) 고깝다 : 야속하고 섭섭하다.

380) 중중거리다 : 원망하듯이 중얼거리다.

381) 기운(氣運) : 가사 원문에서의 “이운”은 이의 오기로 보임.

382) 계교(計較) : 서로 견주어 살피는 것.

383) 동서(同壻) : 자매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 호칭.

384) 귀순(歸順) :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

385) 행신(行身) : 처신(處身). 가져야할 몸가짐이나 행동.

386) 상하분의(上下分義) :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각 제 분수에 알맞게 지켜나가는 도리.

387) 존귀(尊貴) : 지위가 높고 귀함.

388) 현격(懸隔) : 동떨어져서 차이가 매우 심함.

389) 죄책(罪責) : 잘못을 저지른 책임.

390) 환자(還子) 신역(身役) : 환곡(還穀).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춘궁기에 꾸어주었다가 추수 후 돌려받던 곡식 및 그 제도.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

391) 필납(畢納) : 납세나 납품 따위를 끝내는 것.

392) 전답(田畓) 구실 : 논밭에 대한 세납(稅納).

393) 분등(分等) : 등급을 나누는 것.

394) 소출(所出) : 논밭에서 나는 곡식의 양. 또는, 그 형편.

395) 왕세(王稅) : 왕국의 조세(租稅). 봉건시대의 국세(國稅)를 말함.

396) 거납(拒納) : 납세하거나 납부하기를 거절하는 것.

397) 각성 거생(各姓居生) : 각기 서로 다른 성씨가 같은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398) 신의(信義) : 믿음과 의리.

399) 혼인 대사(婚姻大事) :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등의 큰일.
400) 부조(扶助) : 도와줌. 또는,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
401) 상장(喪葬) 우환(憂患) : 장사지내기와 상중에 하는 모든 예식. 집안에 복잡한 일이나 환자가 생겨서 나는 걱정.
402) 수화(水火) : 물과 불이라는 뜻으로 극히 곤란한 환경을 이르는 말.
403) 유무 칭대(有無稱貸) 칭대(稱貸) : 있든지 없든지 서로 칭대하는 것. 이자를 받고 돈을 꿔어주는 것.
404) 요부(饒富) : 살림이 아주 넉넉함.
405) 용심(用心) : 정성스런 마음을 쓰는 것.
406) 시비(是非) : 오르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407)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과부·고아 및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또는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름.
408) 자별(自別) : 친분이 남보다 특별함.
409) 구휼(救恤) : 빈민이나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는 것.
410) 분복(分福) : 타고난 복.
411) 잡(雜)생각 : 잡되고 쓸모없는 이런저런 생각.
412) 주색잡기(酒色雜技) : 술과 계집과 노름.
413) 초두(初頭) : 일이나 기간의 첫머리.
414) 중동(仲冬) : 겨울의 한창 추운 때. 음력 11월을 이름.
415) 대설(大雪) 동지(冬至)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2월 7일경임.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2월 22일경임.
416) 환(換)하다 : 서로 바꾸다.
417) 왕세(王稅) : 앞에 든 각주 395) 참조.
418) 제반미(祭飯米) : 젯메쌀. 제사 때 올리는 밥으로서 젯메를 지을 쌀.
419) 도지(賭地) : 일정한 도조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터.
420) 시겟돈 : 시장에서 판 곡식 값으로 받는 돈.
421) 장변리(場邊利) : 장변(場邊). 장에서 꾸는 돈이나 이자.
422) 수쇄(收刷) : 남에게 빌려준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
423) 엄부렁하다 : 엄범부렁하다의 준말. 실속은 없이 겉만 부피가 크고 엉성하다.
424) 바이없다 : 전혀 없다.
425) 농량(農糧) : 농사를 짓는 동안 먹을 양식.
426) 여투다 :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427) 조반석죽(朝飯夕粥) :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한 살림을 가리키는 말.
428) 동지(冬至) : 앞에 든 각주 415) 참조.
429) 일양(一陽)이 생(生) : 일양내복(一陽來復)을 두고 이름. 음(陰)이 끝나고 양(陽)이 돌아옴. 음력 11월 또는 동지를 가리킴.
430) 시식(時食) : 그 계절에 특별히 있는 음식.

431) 인리친척(隣里親戚) : 이웃 동네 일가친척.
432) 반포(頒布) : 세상에 널리 펴서 알리는 것.
433) 절후(節候) : 15일 내지 16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한 해의 24 절기.
434) 요량(料量) : 앞일 따위를 잘 헤아려 생각하는 것.
435) 관리 면임(官吏面任) :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나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과 공공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436) 시비(柴扉) : 사립문.
437) 초옥(草屋) : 풀로 인 집.
438) 단귀(短晷) : 짧은 해.
439) 조석(朝夕) : 조석반(朝夕飯)의 준말. 아침밥과 저녁밥.
440) 실가(室家) : 집. 또는 가정.
441) 기직 : 왕골껍질이나 부들 잎으로 짚을 싸서 엮은 자리.
442) 깃 : 외양간이나 마구간, 또는 닭의 둥우리 등에 깔아주는 짚이나 마른풀.
443) 계동(季冬) : 음력 섣달.
444) 소한(小寒) 대한(大寒) : 일년 24절후의 하나. 양력으로 1월 6일경으로 연중 가장 추운 때임. 일년 24절후의 마지막. 양력으로 1월 21일경으로 한 해서 가장 추운 계절임.
445) 봉만(峰巒) : 꼭대기가 뾰쪽뾰쪽하게 솟은 산봉우리.
446) 세전(歲前) : 설을 쇠기 전.
447) 설빔 : 설을 맞이하여 새로 몸을 단장하기 위한 옷이나 신 따위.
448) 무명 명주(明紬) : 무명실로 짠 피륙.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449) 무색 : 물감을 들인 빛깔.
450) 자지(紫芝) 보라 송화색(松花色) : 자주색과 보라색. 소나무의 꽃가루와 같은 엷은 노란색.
451) 청화(靑華) 갈매 옥색(玉色) : 중국에서 산출되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 갈맷빛. 짙은 초록빛. 약간 파르스름한 빛깔.
452) 일변(一邊) : 한편.
453) 세육(歲肉) : 정초에 쓰는 고기붙이.
454) 계(契) : 종래부터 전해오던 민간 협동단체.
455) 북어(北魚) : 마른 명태.
456) 납평(臘平) : 납일(臘日). 동지 뒤의 셋째 미일(未日). 이 날 조정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드렸음.
457) 창애 : 짐승을 잡는 틀의 한 가지.
458) 깨강정 콩강정 : 깨를 묻힌 강정. 볶은 콩을 엿으로 버무려 뭉친 강정.
459) 생률(生栗) : 날밤.
460) 주준(酒樽) : 술통.
461) 타병성(打餠聲) : 떡치는 소리.
462) 새발심지 : 종이나 솜으로 새의 발처럼 밑이 세 갈래가 되게 꼬아 세워 놓게 만든 등잔의 심지.
463) 장등(長燈) : 밤새도록 등불을 켜 두는 것.
464) 봉당(封堂)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흙바닥 그대로 둔 곳.

465) 묵은세배(歲拜) : 섣달 그믐날 저녁에 그 해를 보내는 인사로 웃어른에게 하는 절.
466) 종년(終年) 근고(勤苦) : 종세(終歲). 한 해를 마치는 것.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 또는, 그러한 일.
467) 봉용(奉用) : 받들어 쓰는 것.
468) 사계(私系) : 개인적으로 잇는 바.
469) 제선 봉친(祭先奉親) : 선조께 제를 올리고, 어버이를 받들어 모시는 것.
470) 혼상(婚喪) : 혼인에 관한 일과 초상에 관한 일.
471) 소출(所出) : 논밭에서 나는 곡식의 양, 또는, 그 형편.
472) 지당 : 지탱(支撐)에서 변한 말임. 오래 버텨 배겨내는 것.
473) 선업(船業) : 생계를 위해 배를 부리는 일.
474) 전당(典當) : 물건을 담보로 돈을 꾸어 주거나 꾸어 쓰는 것.
475) 장(場)판 : 장이 선 곳.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작거리는 곳을 가리키는 말.
476) 체계(遞計) : 장체계(場遞計).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이자를 받아들이는 일.
477) 술막질 술막 : 주막을 경영하는 영업. 주막(酒幕).
478) 흔전하다 : 아주 넉넉하다.
479) 파락호(破落戶) : 행세하는 자손의 집으로서 난봉을 피워 결단난 사람.
480) 진퇴(進退) : 앞으로 나아감과 뒤로 물러남.
481) 연사(年事) 풍흉(豊凶) : 농사가 되어가는 형편. 풍년과 흉년.
482) 수한(水旱) 풍박(風雹) : 장마와 가뭄. 바람과 우박.
483) 재앙(災殃) : 천변지이(天變地異)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
484) 가솔(家率) 일심(一心) : 집안에 딸린 식구. 한마음.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일치함.
485) 살년(殺年) : 크게 든 흉년.
486) 아사(餓死) : 굶어 죽는 것.
487) 황천(皇天) 지인(至仁)하다. : 하느님. 또는, 크고 넓은 하늘. 지극히 어질다.
488) 노(怒)하다 : 노여움을 일으키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